

# INCHEON INVITES GCF

대한민국 대표 저탄소친환경도시, 송도국제도시

지금, 송도국제도시가  
환경 부문의 세계은행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를 위해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나미비아 등  
세계도시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과 국제항을 품은 교통의 요충지이자  
글로벌대학캠퍼스와 국제학교, 센트럴파크 등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을 갖춘 Compact & Smart City

송도국제도시는 GCF 사무국의 최적지입니다.

이에 인천시와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협력 하에  
GCF 사무국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입니다.

GCF 인천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요.

오늘 송도를 만든 기적이  
내일 세상을 만드는 기적을 이룹니다.



# 인천 굿모닝

Good Morning INCHEON

2012 8





06

Special / 바다갈라짐이 있는 무인도

## 외판 섬, 그 이끌림

섬. 그곳에는 육지의 바닷가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단절감이 있다. 그 단절감이 주는 그들만의 이끌림도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 무인도라면 더 그렇다.

14

Enjoy Incheon / 도심 물놀이 공간

## ‘夏夏夏’ 물의 나라로!

덥다. 세상을 녹일 듯한 태양의 기세에 숨이 턱턱 막힌다. 이럴 때 시원한 도심의 물놀이 공간으로 가자. 넘실거리는 파도와 반짝이는 모래사장은 없어도 하루 종일 신나고 재미나게 놀 수 있다.

26

2014 AG 하나되는 아시아 / 요르단

## 아라비아 황톳빛 언덕과 천년고도를 품다

요르단(Jordan)은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있다. 요르단은 멀지만 성경에 자주 나오는 ‘요(르)단강’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나라다. 지구 반 바퀴는 돌아야 닿을 수 있는 두 나라가 국교 수립을 맺은 지 올해 꼭 50년 되는 해다.



### Cover Story

뜨거운 더위보다 더 핫(hot)한 축제.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은 태양이 작열하면 작열하는대로 떼창과 함께 열정을 공유한다. 음악으로 자유롭고 오롯이 하나되는 열정의 자리다.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 · 사진 홍승훈



06



18



26

# Contents

04 **Communication** 반가운 백아도 기사 외

06 **Special** 바다갈라짐이 있는 무인도

10 **Incheon Life** 연안부두 해양광장

14 **Enjoy Incheon** 도심 물놀이 공간

18 **비전인천** 송도 · 청라 워터프런트

24 **People** 이상만 전 연평중고 교장

26 **2014 AG 하나되는 아시아** 요르단  
32 인천에서 요르단 맛보기

34 **Culture News** 커피콘서트Ⅵ, 2012 SUMMER FESTIVAL

38 **아름다운 사람** 작가 박상희

40 **Fighting** 2012 런던올림픽

42 **Civic News** “영킨 실타래가 하나둘 풀리고 있습니다” 외

46 **Council News** ‘인천광역시의회 제6대 후반기의회 이상만 의장’ 외

48 **Info box** ‘한시(漢詩) 수강생 모집’ 외

52 **모집**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55 **리크루트** 인천 고용정보

56 **건강칼럼** 아름다운 가슴, 건강한 여성

57 **인천사는 이야기** ‘예쁜 정원, 숨은 손길에 감사’ 외

58 **모닝커피 한잔** 김중현 인천국제교류센터 팀장

59 **인천풍경 플러스** 너희가 물을 아느냐

굿모닝 인천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24 / 2012, 8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2년 8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허종식(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twitter.com/ihappyou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twitter.com/youna1488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사진** 자유사진가 김보섭 · 김성환 · 홍승훈 · 안영우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디자인 & 인쇄** 성광디자인(주) T. 032.881.9441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http://goodmorning.incheon.go.kr)과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http://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문의** T.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굿모닝인천〉의 못 다한 이야기, 동영상으로 보세요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사의 취재 영상부터 뒷이야기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종이매체에서 디지털매체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용방법** 스마트폰으로 페이지 상단의 QR 코드 촬영

스마트폰인 경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인천시미디어〉 앱을,

태블릿 PC인 경우 〈굿모닝인천〉 앱을 다운로드 후 실행

(사진 더 보기 기능은 태블릿 PC에서만 가능)



## 인천과 통(通) 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천시 대표 미디어와 SNS에서 우리 만나요.

### 인천시 미디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 인천시 SNS

**소셜웹** (social.incheon.go.kr)  
**블로그** (blog.naver.com/flyic)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 반가운 백아도 기사

〈굿모닝인천〉에서 ‘쉬 달을 수 없어, 마음을 붙잡는 섬’ 백아도 기사를 읽고 반가웠습니다. 지난 3월 초에 홀로 백아도를 여행했거든요. 백아도에는 공룡 등 같은 백아도 남봉의 바위능선, 해식동굴, 오섬 등은 굴업도나 제주에도 뒤지지 않는 비경이었습니다. 덕적군도의 아름다운 마치 한려수도를 응축시켜 놓은 듯합니다. 〈굿모닝인천〉이 이 일대에 관심을 갖고 홍보에 앞장 서 기쁩니다.

\_\_ 김찬현 계양구 계산동

### 올 여름휴가에는 마음의 휴식을

〈굿모닝인천〉의 모든 내용이 좋았지만 그 가운데 ‘여름이야기-북강스’ 편을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그동안 여름 휴가철이 오면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까 고민 했는데, 이렇게 책과 함께 보내는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당장 그동안 멀리했던 책을 가까이 해 북강스의 매력에 푹 빠져보렵니다.

\_\_ 장지훈 의정부시 신곡동

### 천년 바람 부는 강화로 오세요~

“강화도에서 천년 바람 맞으며 유유히 이 여름을 보내세요~” 〈굿모닝인천〉에 내가 살고 있는 강화도가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보석 같은 섬 석모도, 불음도, 주문도 그리고 푸르게 넘실거리는 물결, 물 차면 푸른 세상이 열리고 물 빠지면 회색 웅단이 깔리는 동막해수욕장에서 이 여름을 보내세요. 마니산 자락에 있는 함허동천 캠핑장도 추천합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거예요.

\_\_ 조원옥 강화군 선원면

### 시장과 학생의 만남, 인천의 미래를 확인

〈굿모닝인천〉‘젊음의 열정 세계로 펼쳐라’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송영길 시장의 포부와 계획, 인천의 학생들의 열정과 미래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땀 흘려 일해 받게 빛나는 인천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매월 〈굿모닝인천〉을 통해 소중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_\_ 차순자 부평구 안남로

### 인천을 응원합니다!

송영길 시장과 대학생 기자들의 청춘 간담회 기사를 관심 있게 읽어보았습니다. 인천시가 청년들을 위해 내놓은 각종 정책과 비전을 확인하며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특히 송 시장의 가식 없는 솔직한 인터뷰에 인천이 처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다시 한번 인천이 높이 비상하길 기원합니다.

\_\_ 조석 경기도 의정부시

### 미래자원의 보고가 될 극지연구

〈굿모닝인천〉가운데 사진만 봐도 시원한 극지연구소에 관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름에 보는 하얀 설원이 가슴속을 펄 뚫어주는 듯 합니다. 흑한과 싸우고 있는 연구원들의 노고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미래자원의 보고가 될 극지 연구가 송도를 기점으로 더 많이 발전했으면 합니다.

\_\_ 한상대 부평구 부평동

### 올 여름휴가는 인천의 섬에서

여름휴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굿모닝인천〉에서 인천의 아름다운 섬들을 소개해 주어 도움이 됐습니다. 글과 사진으로 보는 푸른 바다와 섬은, 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미리 설렘을 주기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인천의 섬들을 찾아 여행해 보려 합니다. 앞으로도 시의에 맞는 좋은 정보와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세요.

\_\_ 이상돈 남동구 간석1동

### 독자들이 직접 쓴 기사를 실었으면

지난 6월호 〈굿모닝인천〉을 통해 정보를 얻어 수인선 열차도 타고 소래역사관도 둘러봤습니다. 사라진 추억을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7월호에서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준비한 섬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독자로서 제언한다면, 앞으로 계절에 맞는 관광지나 지역 축제 등의 기사를 독자로부터 받아서 책에 실으면 어떨까요? 생생하게 전달될 것 같아요.

\_\_ 박종형 남동구 구월4동

## @Bulloger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동인천은 언제 개발되나요. 상가건물이 있는데 지구 지정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동인천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식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2013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통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Bulloger** 스쿠터를 타고 다니다보니 도로의 노면상태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면 노면상태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주세요.

도로파손으로 인한 일부 교통사고 발생 우려 구간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기철을 대비해 노면에 파손된 구간에 대한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통행 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Bulloger** 적정 실내 온도를 규정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도서관이 너무 더워요. 중앙도서관은 냉방장치가 고장 났고 주안도서관은 오늘 네 시에나 잠깐 틀어주었네요.

중앙도서관은 인천시교육청에서 가동하는 중앙냉난방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인천시교육청의 냉각탑 이설공사 등으로 인해 현재 시운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에 의거 당일 기온 및 습도 등을 파악해 28℃ 이상일 경우 냉방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Bulloger** 뉴타운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가요? 서울시처럼 명확하고 단호하게 정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인천의 정비사업은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과 근거 법령 및 행정절차가 다른 재개발 재건축사업 중심으로, 구역별 현장방문 상담 및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등에 의한 해제여부 선별처리 및 사업지원 계획 등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 최은미(당시 만3세 1개월, 여)  
**발생일자** 1958년 10월 9일(목)  
**발생장소** 동구 만석동  
**신체특징** 90cm, 13kg, 인종 짙음, 뺨인술이 두 겹고 아랫입술이 얇은 편, 분홍색 계통 긴팔 카디건(스웨터), 회색 계통 하의(군복을 탈색해 옷을 만들어 입음)  
**제보처**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목섬 가는 길

# 외딴 섬, 그 이끌림

섬, 하면 가고 싶지만 정작 그곳에 가면 섬은 섬이 아니다. 달는 순간 육지가 되고 바다 건너 또 다른 섬들이 펼쳐진다. 섬, 그곳에는 육지의 바닷가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단절감이 있다. 그 단절감이 주는 그들만의 이끌림도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 무인도라면 더 그렇다.

글. 정경숙\_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 목섬 금빛 웅단, 섬과 섬을 잇다

선재도는 대부도에서 영흥도로 가는 징검다리 섬으로 여기고 지나치기에는 아까운 섬이다. 섬은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춤을 추었다, 이 름지어질 만큼 경관이 수려하다. 구불구불하게 12킬로미터나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 비경이 숨어있다.

선재대교를 건너면 바로 왼쪽으로 당너머해변이 펼쳐진다. 서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맑고 깊은 바다는 이제 선녀대신 사람들이 벗 삼아 논다. 바닷가 앞에는 목섬이라는 무인도가 있다. 둥그란 바가지를 물 위에 붓듯 올려놓은 듯 앙증맞은 모양이다. 목섬은 정취가 빼어나고 그 안에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고 있어 ‘제15호 향도’로 지정되기도 했다. ‘향도’는 물과 잘록하게 이어진 섬을 뜻한다.

섬은 바닷물에 잠겨있을 때보다 물이 빠져 모랫길이 드러날 때 진면목을 발한다. 사방이 갯벌로 질퍽거리는 데 신기하게도 이 섬으로 들어가는 1킬로미터에 이르는 길에는 모래가 보송보송하게 깔려있다. 혹시라도 발이 빠지지 않을까, 맘씨 고운 섬은 바닷길을 트고 갯벌 한가운데 금빛 웅단을 깔아 놓았다.

속살을 드러낸 바닷 속 세상. 펴온 햇살을 받아 탐스럽게 빛나고 바다 생명들이 그 위에 섬세한 움직임으로 예술 작품을 새기고 있다. 그 길 따라 걷는 길, 마음은 이미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발걸음은 한없이 더디기만 하다.

**Tip** 웅진군 영흥면 선재도는 대부도에서 선재대교를 건너간다. 목섬으로 가려면 선재어촌 체험마을을 거쳐야 한다. 입장료는 1천원, 바지락을 캐려면 7천원을 내야 한다. 선재어촌체험마을 888-3110, 889-9141





1 죽노곶해변 앞 탄섬



2 실미도 가는 길

3 집을 갠 조름도

## 탄섬 사랑이 흐르고 낭만이 물결치다

소야도 가는 길. 덕적도 바다역에 뗏부루해변이라고 쓰여진 작은 통통배가 육지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소야도는 작지만 이름만큼이나 곱고 예쁜 섬이다. 유리알처럼 투명한 자연 안에 때 묻지 않은 주민 20여 명이 오붓이 살아가고 있다.

죽노곶해변은 소야도의 숨은 보석이다. 뗏부루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숲길을 따라 10분 정도 걸으면 작은 해변이 나타난다. 모래는 금빛으로 반짝이고 물은 투명하다 못해 파랗다. 살금살금 보들보들 발끝에서 전해지는 모래의 감촉을 느끼며 바닷가를 거닐어 본다. 여기서 영화 <연애소설>이 펼쳐졌다. 주인공들이 모래위에 조개로 쓴 ‘지환 경희 수인 여행기념’ 글씨는 지워졌지만, 사랑과 우정이 남긴 여운은 아직 파도와 함께 물결친다.

해변 앞에는 뒷목 혹은 탄섬으로 일컫는 아담한 무인도가 있다. 죽노곶해변과 더불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이 섬은 썰물 때가 되서야 품을 활짝 연다. 150미터 남짓한 길을 걸어 또 하나의 섬 안으로 걸어들어 간다. 들리는 건 파도 소리고 보이는 건 수평선뿐이다. 물 위로 솟은 신기루 같은 섬에서 보내는 한때, 육지에서의 일상은 까마득히 잊혀져 간다.

**Tip** 덕적도는 연안부두에서 쾌속선(고려고속훼리 1577-2891)을 타고 간다. 1시간 정도 후면 도착한다. 웅진군 덕적면 소야도는 덕적 바다역에서 배로 3분 거리에 있다.

## 실미도 파도가 아픔 지우는 그 바다

섬은 수면 위에 홀연 듯 솟아 바다와 한 빗줄로 스르르 어우러진다. 춤추는 무희의 옷자락 같아 무의도라 했던가. 용유도 잠진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4분 남짓 바다를 건너면 무의도에 이른다. 가까이 있는 실미도는 1·21사태에 대한 보복으로 중앙정보부가 창설한 북파부대원들이 훈련을 했던 뼈아픈 곳이다. 그 역사를 안고 숨죽여 있던 섬이 세상에 알려진 건 영화 ‘실미도’ 때문이다. 영화세트장은 철거됐고 당시 흔적도 거의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찾아 그 섬으로 향한다.

실미도는 무의도 섬 북서쪽에 있는 실미해변에서 하루 두 번 열리는 바닷길을 따라 걸어 들어갈 수 있다. 섬은 진회색 용단 위에 돌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고 육지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갯벌에서 피어오르는 짠 내음을 맡고 바다생명과 눈인사를 나누노라면 200미터 남짓한 바닷길이 짧게만 느껴진다.

섬은 8미터가 넘지 않는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저 멀리 파도소리를 귀에 담으며 초록빛 터널 속을 건넌다. 그렇게 다다른 건너편 해변. 저 바다는 그 날의 비극을 기억하고 있을까. 파도만이 흰 물꽃을 일으키며 무심히 밀려왔다 가기를 반복할 뿐이다.

**Tip** 중구 무의도에 가려면 잠진도선착장에서 배(무의도해운 751-3354)를 탄다. 실미해변에서 실미도까지 걸어 들어갈 수 있다.

## 조름도 하루 두 번, 섬은 잠에서 깬다

용유해변은 고요하다. 여름이면 밀려드는 차량으로 오도 가도 못할 만큼 몸살을 앓는 주변 을왕리나 왕산해변과는 사뭇 다르다. 해변 앞에는 조름도가 있다. 섬은 사람이 앉아서 즐기고 있는 모습 같다 하여 ‘졸음섬’, 이를 소리 나는 대로 말해 ‘조름섬’으로 불린다. 꾸벅꾸벅 졸고 있던 이 섬은 하루 두 번, 세상을 향해 쪽 기지개를 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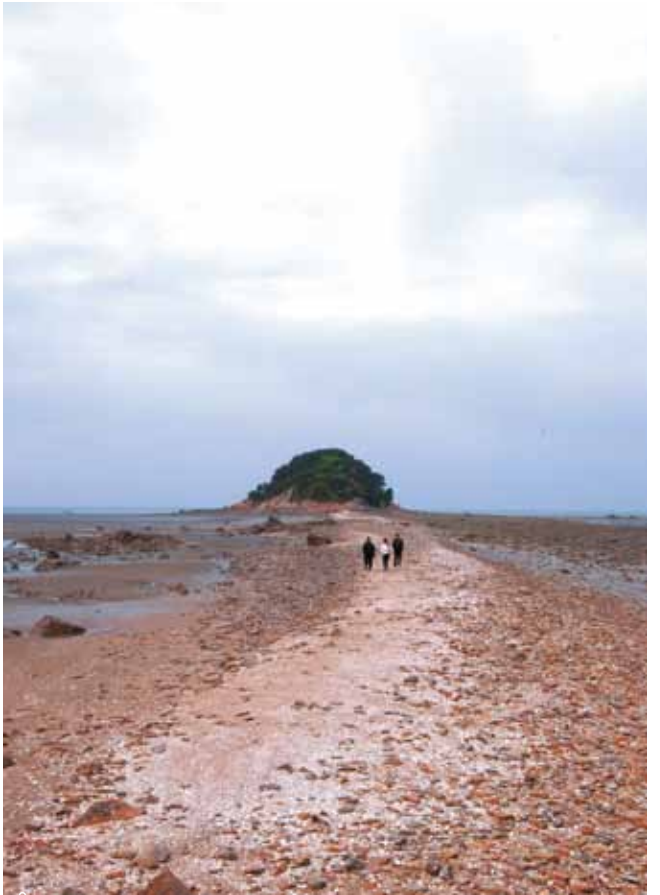
조름도로 가는 길은 질퍽한 갯벌이 아닌 단단한 모래로 이뤄져 있어, 마치 일부러 길을 내 놓은 듯 하다. 가는 길은 굴과 조개가 붙어 있는 갯바위로 가득 메워 있어 이 곳이 바닷속이라는 사실을 실감케 한다. 울퉁불퉁한 갯바위들이 발걸음을 느리게 붙잡지만 그 투박하고 거친 느낌이 싫지 않다.

그렇게 느린 걸음으로 20여 분을 가면 조름도에 이른다. 섬은 자그마하다. 올라도 딱히 정상이라고 할 만한 곳은 없다. 낮은 나무들로 그늘을 드리우고 잠시 쉬어갈 자리를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여행자를 말없이 다독일 뿐이다. 섬에서 다시 일상으로 가는 길. 문득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 섬이 멀어지고 있다.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Tip**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타고 중구 영종·용유도로 간다. 조름도 섬돌이를 하고 용염사가 있는 근처 산에서 산행을 하면 4~5시간 정도 걸린다.

### 섬에서 육지로, 바다가 펼치는 마술

흔히 ‘모세의 기적’이라 말하는 바다가 갈라지는 길은 하루 두 번 열린다. 바다갈라짐이 있는 섬에 가기 위해서는 조석시간표를 잘 맞춰야 한다. 간조시간은 국립해양조사원(www.khoa.go.kr), 885-3827에 문의한다. 한편 이작도에는 풀치 혹은 풀등이라 불리는 모래섬이 있다. 이 섬은 밀물이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가 썰물 때서야 제 속살을 드러낸다. 또 소야도에는 뒷목섬 외에도 소야도와 간대섬 사이 500미터, 간대섬과 물푸레섬 사이 800미터 구간에 바다갈라짐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굴업도는 서섬과 동섬 두 개의 섬이 하나로 연결된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두 섬을 연결하는 목기미해변은 물이 차오르면 잠깐 동안 물에 잠겨 사라져 하나의 섬을 두 개의 섬으로 나누는 마술쇼를 펼친다.







# 바다, 세상에서 가장 큰 쉼터

부두에는 항상 설레임과 망설임, 그리움이 묻어 있다. 연안부두는 인천시민의 다양한 삶의 애환, 사랑, 절망, 눈물과 기쁨, 그런 것들이 가슴 절절히 녹아 있는 장소로 인천이 바다도시이자 항구도시임을 확인시켜 주는 곳이기도 하다. 연안부두 인근에 위치한 연안부두해양광장은 바다를 벗 삼아 휴식하며 삶을 관조할 수 있는 쉼터다. 아직도 후끈한 여름 더위에 몸과 마음이 맥을 못출 때, 선선한 바람이 불고, 시원한 바다가 있어 도심속 피서 장소로 적격이다. 이곳에서는, 쉼 없이 달려 온 지친 몸과 마음을 편하고 자유롭게 내려놓아도 좋다.

글. 이용남\_본지 편집위원 사진. 안영우\_자유사진가,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 부두 사람들의 마음 울렸던 '연안부두 노래비'

연안부두 해양광장에는 7,80년대 삼금을 울렸던 인천시민의 애창곡이자 전 국민의 인기 가요 연안부두 노래비가 있다. 가사를 읽노라면 저절로 노래가 되어 흥얼거리게 된다.

‘어쩌다 한번 / 오는 저 배는 / 무슨 사연 싣고 오길래 / 오는 사람 / 가는 사람 / 마음마다 설레게 하나 / 부두에 꿈을 싣고 떠나는 배야 / 갈매기 우는 마음 / 너는 알겠지 / 말해다오 말해다오 / 연안부두 떠나는 배야’

연안부두 가사를 쓴 조운파 선생은 가사를 만든 배경을 이렇게 말한다. “학생시절에 전학을 와서 인천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하인천부두에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 시절에는 부두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고, 그래서 고깃배나 섬을 오가는 조그만 배들이 많이 드나들었거든요. 물론 간혹 외국을 오가는 외항선들도 있었고, 거기 앉아 있다보면 이별하는 사람, 감격적으로 해후하는 사람, 망망대해를 그저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것들이 가슴에 새겨져 있다가 나중에 노래만드는 일을 하면서 써 보게 된 것이죠.”

연안부두에서 이어지는 해양광장이 시민쉼터로 조성된 지는 오래다. 아무 때나 마음편히 와서 바다를 보고, 갈매기들이 노니는 모습을 바라보며, 섬으로 혹은 해외로 나가는 배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미지의 세계로 마음의 여행을 떠나볼 수 있다. 광장은 바다쉼터답게 불가사리, 꽃게 모양으로 돌의자를 만들었다. 바다앞에 조성된 계단은 시민들이 웅기충기 앉아 바다를 감상하기에 딱 좋다. 가마솥처럼 이글거렸던 태양의 힘이 빠진 어스름 녀에는 밤바다의 아득하고 정겨운 풍경이 마음을 푸근하게 적신다. 촘촘히 정박해 있는 배들 사이로 출렁이는 바다는 고향에 온 듯 마음과 몸에 힘을 북돋운다.





1



2



3



4

1 4D영화관 2 댄스댄스 3 노을지는 바다섬터 4 해양광장

## 전망대 4D영화관, 재미와 호기심 가득

광장의 또 다른 볼거리는 7층 규모의 해양광장전망대다. 카페, 유람선선착장, 4D영화관, 전망대로 꾸며졌다. 7층 꼭대기에 위치한 전망대에서는 연안부두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햇별을 피해 실내에서 바다를 보고 싶다면 전망대가 제격이다. 전망대에서는 바다뿐만 아니라 연안동 일대를 두루 볼 수 있다.

3층 4D영화관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4D작품인 '아쿠아어드벤처', '별주부전'을 20분씩 상영한다. 4D영화용 안경을 쓰고 입장한 극장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속 물고기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상황에 따라 의자가 들썩이고 바람소리를 내어 신기함과 재미에 빠지게 한다. 4D영화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관람료는 어린이 3천 원, 어른 4천원이다.

연안부두해양광장은 인천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이다. 광장에 마련된 분수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더위를 확 날릴 물을 뿜어대기 시작한다. 40분간 다양한 모양의 시원한 물줄기를 하늘로 뿜으며 시민들의 불쾌지수를 날린다. 분수는 40분씩 가동되고 20분 쉰다.

광장은 역사와 기념의 장소이기도 하다. 1904년 러·일 전쟁당시 일본군에 패한 순양함 '바라크호' 선원들의 영웅적 희생을 기념하는 추모비가 설치되어 있어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념한다. 추모비로 인해 러시아 관광객들이 국내에 오면 꼭 다녀가는 필수코스도 떠올랐다. 해양광장은 러시아와 또 다른 인연의 꽃을 피웠다. 인천시는 러시아와 친선과 교류 차원에서 2011년 10월 14일 이곳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을 조성했다.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인천광

##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유람선 타세요

인천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는 인천의 섬으로 떠나는 유람선을 탈 수 있다. 현대유람선이 운영하는 팔미도와 연안부두~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김포터미널까지 가는 유람선 코스가 100년 역사가 살아숨쉬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있는 팔미도는 왕복 2시간 30분이 소요되고 팔미도를 가는 동안 다양한 이벤트 공연이 펼쳐진다. 여행 전 미리 배가 떠나는지 확인은 필수다.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을 거쳐 김포터미널까지 가는 코스도 운행한다. 해양광장에서 인천터미널까지는 편도만 운영하고 1시30분 소요된다. 인천터미널에서 김포여객터미널까지는 3시간이 소요된다.  
문의 현대유람선 882-5555

장을 조성한 것에 대한 답례였다.

광장 한쪽은 푸른 인조잔디가 깔려 시원함을 더한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며 각종 공놀이나 스포츠 경기가 가능하다. 주말에는 야외무대에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각종 무용, 공연이 펼쳐진다. 중구문화원이 예술단체와 연계해 진행하는 예술공연은 매주 토요일 16시~19시까지 열린다. 지난 7월 14일에는 댄스댄스와 각설이타령을 무대에 올려 재미를 선사했다.

## 세월을 낚기에 딱 좋은 연안부두 바다섬터

연안부두 주변엔 또다른 바다섬터가 있다. 연안어시장 방향으로 회센터들이 밀집한 도로 뒤편에 자리해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낚시꾼들에겐 이미 널리 알려진 낚시터이자 섬터인 '바다섬터'다.

연안부두 바다섬터는 시민들이 편하게 바다를 관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얀 파라솔과 벤치를 놓았다. 이곳은 연안부두해양광장보다는 호젓하다. 차 소리, 사람의 부대낌이 싫다면 이곳을 찾아 바다와 더불어 쉬면서 더위를 잊는 것도 좋다. 도로 위 펜스를 따라 펼쳐지는 광활한 바다는 낚시꾼들이 낚싯대를 꽂아 놓고 세월을 건지기에도 충분한 여유와 만족을 준다.

파라솔과 벤치 밑에는 바닷바람을 쐬려나온 가족단위 나들이객들과 낚시꾼들이 자리를 메운다. 이곳은 이미 낚시꾼들 사이에선 갯바위 낚시터 명당으로 이미 이름을 알렸다. 지금은 송어, 망둥어 등이 많이 잡히고 바다 장어의 손맛을 느낄 때 낚시꾼들에겐 최고의 날이다.







# ‘夏夏夏’ 물의 나라로!

덥다. 세상을 녹일 듯한 태양의 기세에 숨이 턱턱 막힌다. 이럴 때 시원한 물에 몸을 ‘퐁당’ 담그고 ‘첨벙첨벙’ 놀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은 이미 파란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굳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도심의 물놀이 공간이 있으니. 테마형 워터파크부터 호텔 수영장, 공원 물놀이장까지. 넘실거리는 파도와 반짝이는 모래사장은 없어도 하루 종일 신나고 재미나다.

글. 정경숙\_본지 편집위원 사진. 홍승훈\_자유사진가



1 골드스파 워터파크 2 송도컨벤시아 워터파크

## Part 1. 테마형 워터파크

### 놀이기구 타고 스파도 즐기고

**골드스파 워터파크** 을왕리해수욕장과 왕산해수욕장 사이에 자리 잡은 골드스카이 리조트 내에 있다. 야외 수영장, 유아풀, 아쿠아풀, 유수풀 등을 갖춘 실내외 워터파크가 특별한 하루를 약속한다. 70미터 길이의 보디 슬라이스는 120도 회전으로 질주하듯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잔잔하게 때론 빠르게 파도가 출렁이는 유수풀은 작은 바다를 옮겨 놓은 듯하다. 이곳은 특히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다. 수심이 얕고 미끄럼틀과 페달보트 같은 놀이기구를 갖춘 유아풀이 있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사우나실도 있다. 또 워터마사지 시스템을 갖춘 아쿠아풀과 한방탕 등이 있어 일상에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어 낸다.

요금 성수기(7월 13일~8월 19일) 대인 3만6천원, 소인(36개월~만 12세) 2만8천원. 중구 주민은 30% 할인. 문의 745-5000, goldensky.co.kr

**강화로얄워터파크** 강화 길상산 자락에 있는 강화로얄유스호스텔 내에 있다. 자연과 어우러진 최신식 시설을 자랑한다. 실내외 아쿠아펀존에 있는 파도풀와 유수풀은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워터플렉스는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하고, 슬라이드는 급류계곡을 지나듯 짜릿한 속도감을 느끼게 한다. 보디 슬라이드를 타고 빙글빙글 내려가면 함성이 절로 터진다. 물놀이하다 지치면 선베드에 누워 구름다리 너머 길상산을 바라보며 달콤한 휴식에 젖을 수 있다.

요금 대인 3만2천원, 소인 2만4천원. 카드로 결제하면 25% 할인. 문의 427-2000, royalspa.co.kr

**이런 가족에게 추천!** 곁에 산과 바다가 있어 여름 휴가지로 손색이 없다. 또 다양한 놀이시설과 스파시설을 갖추어 남녀노소 온 가족이 즐기기에 딱이다.

## Part 2. 이동형 야외 수영장

### 수영복 하나만 챙겨서 출발~

**창개구리 물놀이축제**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 옆 야외전시장에 물놀이 축제가 열렸다. 워터파크는 영아와 유아, 청소년, 성인을 위한 풀장을 갖추고 온 가족을 맞고 있다. 풀장에서 첨벙거리다 덩치 큰 개구리 슬라이더를 타고 시원하게 미끄러지면 더위가 저만치 물러간다. 한편에 그늘막이 있어 휴식을 취하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도 있다. 이달 19일까지 열린다.

요금 입장료는 성인은 1만2천원, 어린이 1만5천원. 문의 1566-6763

**송도 물놀이 페스티벌** 송도국제도시 커널워크 맞은편 바비큐장 입구에도 워터파크가 생겼다. 슬로프를 갖춘 성인과 아이들을 위한 풀장이 있어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버린다. 바비큐장에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점심식사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이달 26일까지 열린다. 송도3교 건너 우측에 있다.

요금 성인 1만5천원, 어린이 1만원, 30명 이상 단체는 40% 할인 문의 858-6562~4

**문학워터파크**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도 워터파크가 들어섰다. 이곳은 영아풀, 유아풀, 일반풀 등을 갖춘 아이들이 연령대에 맞춰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다. 전문 안전요원도 상주한다. 또 곁에 워터슬라이드, 페달보트, 꼬마기차, 바이킹 등을 타는 놀이공간이 있어 즐거움을 더 한다. 물놀이를 즐긴 후에는 근처 비치존과 선탠존, 그늘막에서 해변에 온 듯 망중한을 즐길 수 있다. 최신식 가압필터 여과기가 설치돼 있어 수질도 깨끗하다. 이달 19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요금 입장료는 24개월 이상 어린이, 청소년, 성인은 1만원, 30인 이상 단체는 8천원. 페달보트, 바이킹 등의 놀이기구는 2~3천원 선에 이용. 문의 070-8624-5777

**이런 가족에게 추천!** 휴가를 반납할 정도로 바쁜 일상이라도 짬을 내 부담 없이 갈 수 있다. 연령별 맞춤형 풀장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3 하얏트 리젠시 호텔 수영장  
5 부수지공원 물놀이장

4 인천대공원 물썰매장  
6 송도컨벤시아 워터파크

### Part 3. 물썰매장

#### 여름에 타는 썰매가 더 재밌어요

**서구 공촌동 사계절 썰매장** 썰매타고 썰썰 달리는 사이 무더위는 저만치 달아나 버린다. 서구 공촌동 썰매장에는 너비 35미터, 길이 125미터의 슬로프가 설치돼 있어 시원하게 썰매를 달릴 수 있다. 유아, 어린이,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도 각각 운영한다. 또 주변에 숲이 푸르게 우거져 있어 자연을 벗 삼아 휴식을 취하기 좋다. 이달 3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요금 성인 5천원, 어린이와 청소년은 3천원이다. 단체는 할인이 적용된다.  
문의 565-3483, issi.or.kr

**인천대공원 물썰매장** 인천대공원에는 플라스틱 썰매를 탈 수 있는 길이 120미터 규모의 슬로프가 설치돼 있다. 또 그 옆에 성인용과 유아용 수영장이 있어 하루 종일 신나게 놀 수 있다. 이달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정문 주차장보다 동문 주차장에서 가는 것이 가깝다.

요금 성인 7천원, 청소년 5천원, 어린이 4천원이며 30명 이상 단체는 20% 할인.  
만 4세 미만 유아와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입장. 문의 465-1524~5

**이런 가족에게 추천!** 여름 물놀이, 수영이 다가 아니다. 아이들에게 시원하게 썰매를 타고 달리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자.

### Part 4. 공원 물놀이장

####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동네놀이터

**연수문화공원·부수지공원 물놀이장** 지난해 문을 연 공원 물놀이장은 이미 주민의 입소문을 타고 명소로 자리 잡았다. 물놀이장은 250여 명 어린이들이 뛰놀 수 있는 규모로 15센티미터 깊이의 물이 낮게 깔려 있다. 동네놀이터지만 아이들에게는 워터파크 못지않은 별천지다. 입체형 워터플레이, 워터드롭, 워터샤워, 워터터널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곳이니만큼 안전과 위생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바닥은 고무칩으로 만든 쿠션으로 제작해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칠 염려가 없고 안전요원도 상주한다. 또 물을 매일 교체해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실컷 놀다 지치면 나무그늘 아래 돛자리를 깔고 도시락 만찬을 즐겨도 좋다. 이달 31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매주 월요일과 비오는 날은 쉰다.

요금 무료이며, 놀이터 내 가구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만 이용가능  
문의 810-7476

**이런 가족에게 추천!** 굳이 멀고 돈 들어가는 워터파크에 갈 필요가 없다. 가까운 동네놀이터에도 물놀이장이 있으니, 똑똑한 알뜰족이라면 머릿속에 메모해 두자.

### Part 5. 호텔 수영장

####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한, 정당한 사치

**하얏트 리젠시** 영종도에 있는 하얏트 리젠시 인천 호텔은 인천국제공항에서 3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주변 자연경관도 수려하다. 수영장은 실내이지만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자연 채광이 비추고 야생화정원과 연결돼 있다. 25미터 길이의 수영장은 오존 살균 시스템을 갖춘 최신식 자쿠지 시설을 겸비하고 있다. 수영을 즐긴 후에는 300여 가지 야생화가 핀 정원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요금 호텔에 투숙객은 피트니스센터, 사우나와 함께 무료로 이용 가능 문의 745-1234

**쉐라톤 인천** 쉐라톤 인천 호텔은 송도국제도시의 심장 국제업무단지 중심에 있는 유일한 특급 호텔이다. 20미터 길이의 레인을 갖춘 수영장은 쾌적하면서도 모던한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한쪽 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고 천장은 높고 하늘하늘 파도 물결로 디자인돼 있어 보기만해도 시원하다. 선베드에 몸을 누인 채 청명한 바다를 눈에 담은 여름날의 휴가,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한 정당한 사치다.

요금 호텔에 투숙객은 피트니스센터, 사우나와 함께 무료로 이용 가능 문의 835-1000

**이런 가족에게 추천!** 피트니스회원과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질이 깨끗하고 시설이 쾌적하다. 여름 패키지를 이용하면 큰 부담없이 특별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다.

#### 수영장, 간간하게 골라서 놀자

수영장, 이동형부터 테마형 워터파크까지 그 종류도 가지가지. '맘 편히 놀 수 있을까, 깨끗하고 안전할까?' 간간하고 꼼꼼하게 따져보자.



**안전한가**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에게 안전은 필수. 수심이 낮은 유아풀이라도 아이를 항상 지켜봐야 하므로 안전요원이 있는지 확인한다. 안전요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꼭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한다.  
**수질은 좋나** 아이나 어르신은 면역력이 약하므로 수질이 좋은지 특히 신경 써야 한다. 물을 가두지 않고, 수구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넘치는 물은 배출구로 흘러가는 오버플로 위생상 좋다.  
**물 온도는 적당한가** 아이들과 놀 때는 30℃ 수온에 실내 온도는 25~27℃ 정도가 적당하다. 실내 수영장이라면 통유리창 등으로 자연채광이 들어오는 곳이 좋고, 체온을 조절하는 풀이나 스파가 있다면 더욱 좋다.





1 송도국제도시 북쪽 수로 2 공원을 찾은 가족 3 6·8공구 호수



## 물, 도시를 디자인하다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국제도시가 수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물의 도시로 변신한다. 인천은 바다와 직접 맞닿아 있어 바다, 호수, 강, 하천을 연결하는 워터프런트 자원이 풍부하다. 송도·청라는 워터프런트 조성으로 윈드서핑, 요트, 조정, 카누를 즐길 수 있는 레저공간이 되고, 관광호텔, 낙조카페, 수변상업몰이 들어서 쇼핑과 관광이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관광 메카로 부상한다. 선진해양 도시에서나 보고 즐기던 다양한 수변문화가 인천 송도·청라에서 선보일 날이 멀지 않았다.

글. 이용남\_본지 편집위원 사진. 안영우\_자유사진가

### 바다호수에 둘러싸인 아트센터

송도워터프런트 계획은 바다도시이지만 도심에서 물을 보고 체험할 수 없는 인천의 딜레마를 풀고, 물을 도시브랜드로 삼자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송도의 물길인 남·북측 수로, 센트럴파크, 6·8공구 호수, 조류대체서식지 등을 연결하고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화려한 변신을 한다.

이 수변공간은 해양 레저, 관광의 중심지로 태어남은 물론 아름답고 화려한 경관조성으로 시민이 사랑하는 장소가 된다. 송도국제도시 물 공간은 총 면적 53.34㎢중 9.58㎢로 18%에 해당한다. 송도워터프런트 계획의 가장 핵심이자 눈에 띄는 사업은 6·8공구 내에 조성된 해양호수다. 호수는 바다를 막아 만들었다. 센트럴파크 호수에 비해 1.5배나 크다. 호수의 장대한 규모만 보면 바다로

착각하기 쉽다. 호수는 조석간만의 차이로 하루에 두 번 정도 바닷물이 들어왔다 빠져나간다. 그야말로 자연그대로 살아있는 호수다. 호수쪽으로 물이 들어올 때는 물고기들도 같이 유입되기에 물찬 제비들의 날갯짓이 힘차다. 제비들이 사냥을 위해 부지런히 바다로 다이빙한다.

6·8공구 호수를 둘러싸고 조성되는 인천아트센터는 흡사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를 닮았다. 바다호수를 끼고 들어서는 세계적 규모의 공연장. 서해의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하면서 예술을 즐기는 사람들의 삼삼오오 모여드는 날이 멀지 않았다. 6·8공구 호수 주변은 수상레저, 인공해수욕장, 마리나베이로 개발하며 마리나시설은 요트 100척을 계류할 수 있는 규모다.





4

## 아암공원~송도교 북측수로 가족공간 변신

6·8공구 호수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된다. 오션뷰(Ocean View)는 물론 꽃과 나무를 보고 감상할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호수 주변은 꽃길, 자건거도로, 산책코스 등으로 정비된다.

아암공원에서 송도 1, 2, 3교를 연결하는 북측수로는 가족단위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된다. 소규모 보트장, 조정, 카누, 유람선이 운항하고 사계절 수영장, 바다수로 낚시터 등이 조성되어 사계절 물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현재 북측수로는 조정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 주변은 자건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남측수로는 해양레저, 쇼핑, 관광, 요트 클러스트의 중심지로 부상한다. 이곳은 앞으로 4, 5공구 우수지를 대체하는 공간으로 바뀌며 주변에 수변테크 및 조망 시설이 들어선다. 관광객 전용 레지던스, 호텔형 숙박촌, 낙조카페, 아트 스트리트, 해양레저체험장 등이 마련됨에 따라 서해의 장대한 바다를 체험하며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이곳에는 대형보트 300척이 들어서는 마리나

시설도 마련된다.

송도국제도시 동쪽에는 조류대체 서식지가 만들어진다. 이곳에는 해양생태를 보전하고 조류서식을 돕는 인공섬 3개를 조성한다. 새를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조류생태박물관 등 자연학습장, 희귀조류 서식지 인공섬 설치, 수상테크, 은폐 탐조센터, 철새도래지, 갈대숲, 갯벌체험 시설이 마련돼 어린이들의 새 탐구 및 체험공간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송도국제도시가 물의 도시, 수변도시로 나가는 데 있어 청정 수질은 꼭 담보돼야 할 과제다. 물관리가 안돼 깨끗하지 않은 수질은 도리어 불쾌감을 야기해 물의 도시를 불편하게 만든다. 시는 살아 숨쉬는 청결수질 유지를 위해 조력에 의한 해수순환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 유입수 차집 관거로 별도처리, 수질보전을 위한 해양 수생식물을 심어 깨끗한 물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송도위터프런트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세계 최초의 해수조력에 의한 블루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모델로,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예정이다.

송도위터프런트 사업은 물과 빛이 도시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으로 자리한다. 빛과 물로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를 더욱 화려하고 볼거리 있게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장동력으로 삼는다. 빛의 도시 프로젝트는 수변공간 주요 건물인 NEATT, 아트센터, 랜드마크빌딩, 컨벤시아 등에 LED패널, 교량에 야간조명을 설치해 물과 빛의 조화를 이룬다. 물의도시 프로젝트는 수변 주요 조망점을 랜드마크화 하고,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수상조형물 등으로 꾸며 수변공간을 사람이 찾고 즐기는 공간으로 만든다.

## 바닷물 수로조성… 다양한 수상레저 즐겨

송도위터프런트 사업은 센트럴파크와도 고리를 잇는다. 송도센트럴파크는 이미 바다를 공원에 옮겨 놓은 해수변이 가장 돋보이는 공간이다. 면적은 송도 1, 3공구 개발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는 41만천㎡ 규모다. 공원 내 바닷물을 끌어들이 수로를 조성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됐고, 해외에서도 흔치 않은 사

레다. 바닷물을 이용해 수로를 만들면 공사비와 유지비가 절감되고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는 장점이 있다. 사시사철 공원 이용이 가능해 호응이 높다.

해수로는 길이 1.8km, 폭 12~110m 규모로 12인승 수상택시 '미추홀호'를 운행하고 있다. 송도센트럴파크는 레저와 교육 등 새로운 개념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공원의 면모를 갖췄으며, 동고서저형인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에 따라 공원을 해안·구릉·계곡·산악지대 등으로 다양하게 형상화했다.

2009년 8월 오픈한 이래 센트럴파크는 수변공간의 진수를 보여준다. 해수로를 따라 관광객들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이국적이고 다양한 건물과 풍경을 보여주는 수상택시는 이미 이곳의 명물이다. 시원한 물길을 가르고 바람이 주는 신선함을 느끼며 약 20분간 왕복한다. 이외에도 수상레포츠인 카누, 워커베이, 립보트, 세일링딩기, 수상자전거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문의 센트럴파크 위터스포츠 070-4610-3956



4 센트럴파크 수로  
5 꽃시승  
6 수상자전거  
7 미추홀호

## Tip 송도9경 같이 둘러보세요

### 꽃시승, 토끼, 석양 등 볼거리 다양

송도센트럴파크가 국제도시를 대표하는 공원답게 시민의 볼거리, 놀거리가 풍부한 공원으로 변신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원을 주제별 특색에 맞는 '9경(九景)'을 조성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투자유치를 끌어오는데 일조하고 있다.

공원 9경을 살펴보면 1경은 수상택시에서 바라보는 송도경관, 2경은 호드러지게 핀 철쭉동산, 3경 전통문화가 피어나는 한옥마을, 4경 호수교에서 바라보는 석양, 5경 송도비치 해수욕장, 6경 I-Tower와 조우하는 지구촌의 얼굴, 7경 바람소리가 들려오는 역새초원, 8경 한가로운 풀을 뜯는 꽃 시승, 9경 송하정의 아름다운 달과 수변공간 등이다.

송도센트럴파크는 수변공간과 다양한 볼거리 연계를 더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것으로 보인다.



# 곤돌라가 물길 잇는 청라 베니스



청라국제도시는 물을 도시의 기반요소로 삼고, 세계적인 국제금융도시를 지향한다. 물의 도시 베니스처럼 유전자적인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고 곤돌라와 수상버스를 타고 낭만과 자유를 꿈꾼다. 아름다운 물길은 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어 청라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발히 이끄는 요소가 된다. 수변공간 주변은 관광, 스포츠, 레저단지를 조성하여 복합비즈니스가 가능한 자족도시로 화려하게 변신한다.

글. 이용남\_본지 편집위원 사진. 안영우\_자유사진가

청라국제도시의 워터프런트 공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중앙호수공원과 베니스의 물길과 닮은 주운수로다. 중앙호수공원과 주운수로, 450m의 전망용 타워(청라시티타워)는 청라는 물론 국가의 랜드마크로 활용한다.

총 길이 4.5km에 이르는 주운수로는 가로폭이 10m, 수심이 1~1.5m에 이르고 물길에는 곤돌라, 수상버스가 다녀 물의 도시 느낌을 한껏 자아낼 것으로 보인다.

주운수로는 중봉대로~서구청 구간의 1단계는 완공되어 벤치, 다리, 호수가 만들어져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 3단계 구간은 아직도 물길을 조성 중이다. 주운수로는 중앙호수공원과 연결되어 아름답고 정감있는 수변공간을 연출한다.

주운수로와 중앙호수공원에 투입될 물은 한강원수를 사용하며 깨끗하고 청정한 수질 유지를 위해 물 순환관리시스템을 도입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주운수로와 중앙호수공원에 투여될 물의 양은 1일 3천톤 규모다.

중앙호수공원은 지난 6월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주운수로를 포함한 규모만도 106만㎡로 일산호수공원(103만㎡)보다 넓으며 201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호수공원에는 작은 섬 두 개를 조성한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는 공간이다. 이외에도 순환산책로 4km, 교량 8개, 선착장 4개, 대형음악분수, 주차장 4개, 물속광장, 습지원, 잔디광장, 공연테크, 바닥분수, 운동시설 등의 다양한 문화시설로 만들어 시민이 즐겨찾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한다.

중앙호수공원은 공촌천, 심곡천, 주운수로와도 연결된다. 공원 주변에는 레저, 전통, 예술, 생태를 콘셉트로 하는 복합문화공간이 만들어진다. 중앙공원 중앙부에 들어설 시티타워(높이 450m)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청라국제도시를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는 북쪽의 공촌천과 남쪽의 심곡천은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휴게공간이자 생태하천으로 거듭난다. 이 하천들은 오페라의 유입을 막고 물 관리로 주변환경을 정비한 뒤 서울의 양재천과 같은 공원, 생태하천으로 화려하게 변신한다. 물고기가 노니는 모습이 보이고, 버들치가 살아있는 그야말로 자연 체험장이 된다. 생태하천으로 바뀌는 심곡천, 공촌천은 습지 등 자연생태하천으로 조성되어 청라워터프런트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1 조기파시로 유명한 연평도의 60년대 모습    2 이상만 전 교장  
3 67년 당시 인천-연평도를 오가던 여객선    4 연평중학교 15주년 체육대회

# 섬마을 선생님, 낡은 가방 속 사진들

글. 유동현\_본지 편집장

“이거 경기도에서 달라고 몇 번 졸랐지만 안 줬어. 인천시가 갖고 있는 게 맞아.”

지난 5월 하순 어느 날 오후, 조그만 가방을 둘러매고 모자를 눌러 쓴 어르신 한 분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낡은 가방을 열고 탁자에 내 놓은 것은 몇 장의 문서 복사본과 사진이었다. 빗바랜 복사본과 낡은 흑백 사진은 6,70년대 연평도와 관련된 것들이다. 특히 ‘황금의 파시 연평도 1967. 5’라고 쓰여진 사진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 사료 가치가 매우 높다.

이날 사무실을 찾은 주인공은 40년 동안 교단을 지켰던 이상만(李相滿) 전 교장선생님이다. 그가 교직에 첫발을 내디딘 건 1958년 1월이었다.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송내국민학교였다. 서울농대 수의학과를 56년에 졸업하고 충남 당진에서 2년간 ‘공수의사(公獸醫士)’를 하던 중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교직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수의사로 가축병원을 했으면 도회지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었지만 농어촌에서 전공을 살려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그에게는 더 의미있고 행복했다.

9년 10개월간의 초등교사 시절을 마감하고 중등으로 자리를 옮

긴 건 67년이다. 첫 부임지가 바로 옹진군 연평도의 연평중학교였다. 당시로서는 오지 중의 오지였다. 연안부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운행되는 목선을 타고 무려 14시간이나 가야 하는 섬이었다. 아침 7시에 배를 타면 깜깜한 밤 중에야 섬에 도착했다. 날씨가 나쁘면 한 두달 발에 묶이기도 했다.

그는 그곳에서 심훈의 ‘상록수’처럼 주민들과 연계된 ‘계몽’에 힘을 쏟기 시작한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 소, 돼지 등의 가축 질병을 치료해주거나 예방과 기술보급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저축, 예절운동, 마을금고 설치, 청소년 운동 등 살아있는 상록수의 ‘채영신’이었다. 그는 호를 아예 ‘상록(常綠)’으로 지었다.

이런 상록수 운동은 연평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다. 강화중 서도분교, 백령중, 백령중고, 용유중, 대부중중고 등 그가 부임하는 크고 작은 섬에서 계속 이어졌다. 영원한 ‘섬마을 선생님’이었던 그는 10년 6개월의 교장직을 끝으로 1993년에 교단을 떠났다. 그리곤 다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옹진군 공수의로 근무하면서 변함없는 섬 사랑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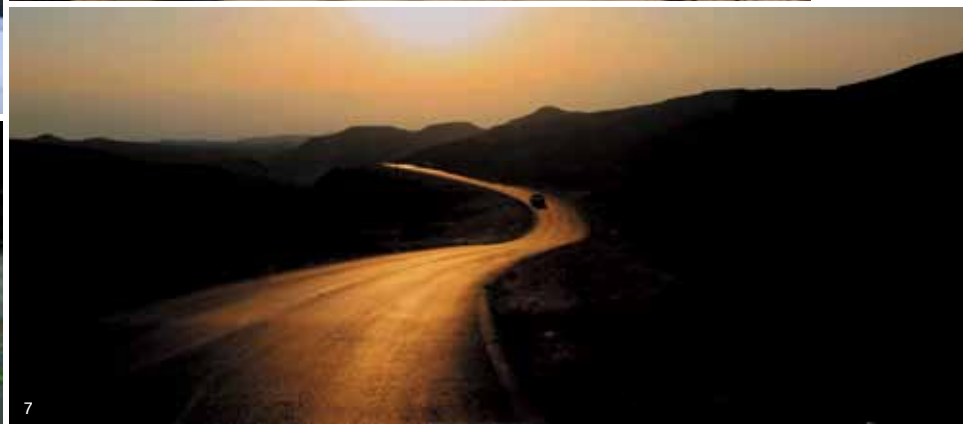


## 아라비아 황톳빛 언덕과 천년고도를 품다

요르단(Jordan)은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있다.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와는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 곳에 있다. 아직 직항기가 없어서 아랍 에미리트로 가서 한 번 더 비행기를 갈아타야 갈 수 있다. 그 옛날 낙타타고 실크로드를 거쳐 갈 수 있었던 길을 이제 비행기로 황해~장강~천산산맥~고비사막 등 바다 건너 산 넘고 강을 지나서 족히 15시간은 걸려야 만날 수 있다. 요르단은 멀지만 성경에 자주 나오는 '요(르)단 강'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우리에게 친숙하다. 지구 반 바퀴는 돌아야 닿을 수 있는 두 나라가 국교 수립을 맺은 지 올해 꼭 50년 되는 해다.

글. 유동현\_본지 편집장 사진. 김성환\_포토저널리스트





## 그리스·로마 보다 더 그리스·로마적

아라비아 반도의 작은 왕국 요르단은 옛부터 카라반들의 교역로였다. 홍해에 접한 아카바항에서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잇는 전통적인 대상들의 교역로였던 'King's road'에 위치하고 있어 이집트·시리아·그리스·페르시아·비잔틴·이슬람 등 찬란했던 고대 문명들의 자양분을 흡수했다.

요르단에서는 '과거'가 '현재'를 먹여 살린다. 전체 산업의 50%를 관광산업이 차지할 만큼 관광은 요르단의 주요 산업이다. 요르단에는 80만개 유적지가 있어 그야말로 '열린 박물관(Open Museum)'이란 칭호가 딱 들어맞는다. 무엇보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문화가 공존한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성경 지명이 많고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 40년 중 38년을 보낸 곳이며,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은 7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고대 도시다. 기원전 1천200년께 암몬족의 수도였던 암몬 성터(Citadel)에는 헤롯대왕이 헤라클레스에게 바친 거대한 신전과 비잔틴 양식의 정문, 그리고 교회의 잔해와 물 저장고, 성곽 등이 남아 있다. 관광객들에게는 가슴 벅찬 그리스·로마 양식의 유적들이지만 그곳 주민들에게는 해질녘 한가하게 엉덩이 걸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돌덩

이일 뿐이다. 요르단에는 그리스·로마보다 오히려 그리스·로마 유적이 더 온전히 남아 있다는 평을 받을 만큼 흔하다. 해발 850m의 언덕에 자리 잡은 성터 주위에는 온통 황토색 혹은 회색빛을 띠는 사각형 집들이 사방에 빼곡하다. 그 빛깔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규제한 듯한데 문득 사막을 달리는 낙타의 색깔과 흡사하다. 암만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제라쉬는 정복자 알렉산더에 의해 처음 건설된 도시다. 4세기 이후에는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7세기 경 이슬람 제국에 정복되어 이슬람 문화가 덧입혀졌다. 개선문과 56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둥그런 광장, 5천석 규모의 로마식극장, 대열주 도로, 제우스·아르테미스신전, 비잔틴교회 유적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특히 '1천개의 기둥도시'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르테미스신전으로 가는 길에는 화려한 코린트식 기둥들이 마치 로마병정들이 사열하듯 줄지어 세워져 있다. 그 길을 걷다보면 사막도 있고, 협곡도 있고 어느덧 로마시대의 원로원이 된 듯한 착각에 잠시 빠지게도 된다. 이 모든 영화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진리를 새삼스럽게 느낀다.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약 250km 길이의 국경을 맞대고 있다. 요르단의 현대사는 거의 이스라엘과 애증의 관계로 흘러왔다. 1948년 제

- 1 페트라-알 카즈나
- 2 차도르 쓴 여인처럼 협곡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알카즈나
- 3 암만 헤라클레스 신전
- 4 5 요르단의 얼굴
- 6 '1천개의 기둥도시' 제라쉬
- 7 킨스웨이

1차 중동전쟁 이후 수차례의 전쟁으로 인해 국경선도 몇 차례 다시 그어졌으며 현재 600만명 전체 인구 중 절반가량은 전쟁을 피해 요르단으로 이주해 정착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암만 북쪽 110km에 위치한 움 카이스는 국경도시다. 요르단, 이스라엘, 시리아 세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가다라 지방으로 예수가 귀신 들린 병자를 살리기 위해 2천마리의 돼지를 몰살시킨 곳으로 유명하다. 현무암으로 만든 검은색 돌기둥과 비교적 원래 모습이 잘 보존된 원형극장 등 비잔틴 시대 전후의 유적이 남아 있다. 움 카이스의 언덕에 서면 골란고원과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휴양도시인 티베리아가 한눈에 펼쳐진다.

## 끝내 신비의 베일 벗지 않는 페트라

요르단에서 딱 한 곳만 들르라고 하면 관광객의 대부분은 2천 400여 년 전 건설된 세계 7대 불가사의의 고대 도시 페트라를 꼽는다. 영화 '인디انا 존스-최후의 성전'에서 성배를 찾아 나섰던 고고학자 부자가 무너지는 신전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촬영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기원전 300년 전 아랍계 유목민 나바티안족이 건설한 페τρα라는 교역로의 중심지였지만 대상무역이 쇠하고 수차례 외침과 지진으로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800년대 초 스위스 고대유적 탐험가 요한 루트비히는 현지인에게서 솔깃한 정보를 얻고 선지자 아론의 무덤에 제물로 바치려 간다는 이유를 대고 염소 한 마리를 끌고 갔다. 1812년 8월, 그는 마침내 금지된 땅에 '잠입'했다. 천년 고도 '페트라'가 다시 세상에 나온 순간이었다. 바로 그 '발견'이 올해 딱 200주년이 되는 해다.

페τρα의 보물 중의 보물은 알 카즈나. 이에 도달하려면 깎아지른 듯한 협곡 시크(siq)를 수없이 지나야 한다. 100m 넘는 높이의 암벽 사이로 난 협곡은 침식 작용과 대홍수로 생겨난 지형으로 살아있는 지질학 교과서이자 살아 있는 조각품 전시장이다. 수천 년의 시공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다보면 일순간 협곡 틈새로 햇빛을 받아 연분홍빛이 된 알 카즈나가 그 모습을 살짝 보인다. 마치 차도르를 걸친 베두인족 여인의 홍조 띤 얼굴처럼... 신전이나 왕릉으로 추정되는 알 카즈나는 6개의 원형 기둥이 받치는 2층 구조의 건축물로, 붉은 사암 암벽의 안을 파서 만들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여기서 다시 좁은 협곡을 따라 50m쯤 내려가면 시야가 확 트이면서 바위로 만든 도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걸어서 족히 두 시간은 걸리는 황토길 투어에는 원형극장, 바위 무덤, 교회와 집 등 시간을 품은 폐허를 끝없이 만난다. 현재까지 발굴된 유적지는 700여 곳.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유적이 얼마나





- 5 황톳빛 사막 와디 림
- 6 홍해와 접한 요르단  
유일의 항구도시 아카바
- 7 모자이크로 유명한  
마다바의 가게
- 8 카락성
- 9 요르단에서 굴러다니는  
차의 대부분은 한국산이다.
- 10 멀리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움 카이스 언덕



되는 지 가늠조차 힘들다. 페트라라는 신비의 베일을 끝내 벗지 않고 영원히 불가사의로 남지 않을까.

### 태초의 땅, 사막과 광야

요르단은 사막과 광야의 나라다. 도시에서 자동차로 10분만 벗어나도 온통 황무지다. 대표적인 사막은 남서부에 위치한 와디 림. 영겁의 바람에 의해 만들어진 붉은 암석들과 모래언덕이 장관을 이룬다. 모래라곤 해변에서나 볼 수 있는 우리로서는 그곳에 가면 '태초'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처음'을 체험케 하는 태곳적 상태로 잠시 멍 해진다. 마치 외계에 와있는 듯한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물려온다. 인간이 감히 범접하지 못한 하나님의 땅. 그 광활한 비어 있음이 압도적으로 다가오며 인간은 한갓 미물에 지나지 않다는 겸손함을 새삼 깨닫게 한다. 그곳에서는 달리는 곳이 길ियो, 오르는 곳이 정상이다. 바람만이 길을 내 준다.

가장 요르단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와디 림에는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실존 인물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1888~1935)의 흔적이 곳곳에 있다. 영국 군인이던 그는 연고도 없는 아랍 지역의 독립을 위해 1917년 이 거친 사막을 가로질렀다. 요르단에서 가장 의미있는 기독교 유적은 해발 835m의 느보산(Nebo)이다. 요르단 계곡과 사해, 여리고, 요르단강(요단강)이 한 눈에 들어오는 느보산은 120세의 모세가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이곳에서 죽어 장사지내졌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인근 마다바시의 세인트조지 교회 바닥에는 AD 560년께 만든 세계 최고 최대(25m×5m)의 모자이크 지도가 있다. 약 200만개의 천연돌로 만들어진 이 지도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이집트 나일강 부터 터키까지 담고 있어 성서 지리학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 석유와 맛바꾼 항구

요르단에도 사해(死海)가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해저 400m 지점에 위치한 소금바다다. 이 사해를 가운데 선을 그어 이스라엘과 반반씩 갖고 있다. 이곳에 몸을 담그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구멍조끼 없이 저절로 몸이 둥둥 뜨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사해는 보통 바다보다 약 5~6배 더 높은 염도를 함유해 어떠한 생물도 살지 못하지만 각종 유기물이 들어 있어 피부병

이나 류머티스 등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요르단인은 이 사해에 와서 수영하고 머드팩하는 것을 호사로 삼는다. 사해는 매년 1m씩 줄어 400년 뒤 완전 마를 것으로 예상돼 그 호사도 후손들은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요르단은 바다를 갖고 있지 못했다. 이스라엘과 사막에 막힌 내륙국가였다. 숨이 막혔다. 그들은 석유가 매장된 광대한 땅을 아라비아반도 남쪽 끝 홍해와 연결된 사우디 해안과 맞바꿨다. 20 여km의 해안을 얻기 위해 산유국의 지위를 잃은 것이다. 그 해안도시가 바로 아카바항이다. 그곳은 요르단의 숨통이다. 수출입되는 많은 화물이 그곳으로 통한다. 광활한 광야와 암석 계곡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마치 태평양이나 지중해 리조트 어딘가에 온 것 같이 사계절 마린 스포츠가 성행하고 오성급 호텔들이 해안가를 따라 늘어서 있다. 불현듯 도처가 바다인 우리네 삶이 행복하게 느껴졌다.



요르단의 정식 국명은 요르단하삼왕국(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으로, 아라비아반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9만km<sup>2</sup>로 남한보다 조금 작고 그나마 전체의 90% 이상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사막이다. 인구는 약 620만 (2008년 현재)로 종족 구성은 아랍인이 98%, 아르메니아인이 1%, 체르케스인이 1% 등이다. 이 나라는 1세기부터 6세기까지 기독교문화권에 속하였으나 636년 이후 사라센제국의 판도에 편입됐다. 11세기 100년간은 십자군의 지배로 다시 기독교문화권에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슬람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와는 1962년 7월 26일 외교관계를 맺었다. 요르단은 국산 중고차 1위 수입국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량(약 30만대)의 30%를 웃돌고 있다.

※ 포토저널리스트 김성환의 요르단 사진전이 10월 초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요르단 레스토랑 '아라베스크'에서 열립니다.



# 현대판 카라반의 오아시스 ‘아라베스크’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

짭조름하면서도 담백한 아라비아의 맛을 인천에서 맛본다. 지구 반 바퀴를 돌아야 닿을 수 있는 사막의 나라 요르단의 맛을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아랍전문 레스토랑 ‘아라베스크’에서 만날 수 있다. 요르단에서 온 ‘아라베스크’의 주인장 피라스 알코파히 씨가 인천에 내놓는 맛은 아랍문화 그 자체다. “I love incheon!”을 외치는 그는 현재 시민명예외교관으로 활동하며 음식과 봉사활동으로 인천과 요르단을 잇는 다리가 되고 있다.

글·사진. 김민영\_자유기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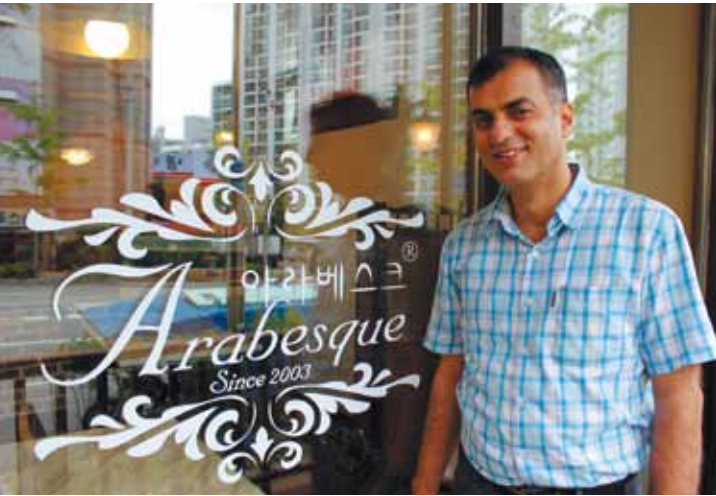


## 다양한 아랍의 문화를 맛보다

‘아라베스크’는 아라비아를 대표하는 전통 장식 무늬를 뜻한다. 아랍음식점 ‘아라베스크’는 아랍에서 날아 온 건강한 식재료로 이국적인 맛을 뽐낸다.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아랍권의 근로자와 무역상들의 지친 입맛을 사로잡는 ‘아라베스크’는 그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독특한 이국적 음식에 빠진食客들 사이에서 새롭게 입소문이 돌고 있다. 바쁜 일과를 마친 이들이 해질녘 하나둘 아라베스크를 찾아 그들의 식탁이 차려지길 기다린다. 노릇노릇 오븐에서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난’이라 불리는 아랍의 빵은 담백한 맛으로 혹은 마늘향과 허브향이 듬뿍 베인 맛으로 식탁에 오른다.

직접 만든 플레인 요구르트, 샐러드, 감자튀김, 그리고 식감 좋은 양갈비 구이, 화덕에서 살살 구워낸 담백한 꼬치가 한가득 식탁을 채운다. 요르단 쌀 ‘바스마디’로 만들어진 ‘갑사’가 식탁을 완성시킨다. ‘갑사’는 닭고기를 넣고 양념을 한 밥이다. 난은 대충 손으로 찢어 콩으로 만든 소스와 요구르트를 찍어 먹고, 닭과 양고기 등 다양한 재료로 맛을 낸 ‘커리’는 ‘난’과 ‘갑사’와 어우러져 깊은 감칠맛을 낸다.

음식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이 녹아있다. 요플레와 피클, 올리브 절임은 우리나라의 김치와 같은 아랍음식이다. 요르단에서는 집집마다 공터에 올리브나무를 키운다. 그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밀반찬을 만든다. 대부분의 아랍 음식에는 다양한 허브가



쓰인다. 건조하고 더운 날씨 탓에 음식은 다소 짭조름하고 허브로 독특한 향을 만든다. 물처럼 마시는 홍차와 영양이 듬뿍 담긴 밀크 티는 인기 있는 음료다. 요르단에서 들어오는 밀과 허브 등 모든 농산물은 친환경으로 재배된 건강한 식재료다. 친구들과 식사를 하는 그들의 얼굴은 평온하다. 고향의 건강한 맛은 누구에게나 안식을 준다. 그 아랍의 맛이 그대로 인천으로 왔다. 이제 그 맛이 인천시민에게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한두 번 온 사람들은 여지없이 단골이 된다.

## 아랍음식 문화 전도사 피라스 알코파히 씨

맛으로 아랍 문화를 전파하는 이는 피라스 알코파히(43)씨다. 아랍음식이라곤 케밥 밖에 몰랐던 우리에게 다양한 아랍음식을 만들어 선보이는 그가 인천에 오게된 것은 1999년. 요르단에서 그래픽디자인을 전공한 그가 처음 인천에 온 것은 무역이 연인이 되었다. 그는 가구 소품을 시작으로 중고차 부품까지 거래했다. 14년째 이국땅에서 생활하는 그에게 한국은 이제 고향과도 같다. 인하대학교에서 미술 석사과정을 수료하며 진정한 ‘인천인이’ 되었다. 2003년 9월 동인천에 ‘아라베스크’ 레스토랑을 열었고 한국인 여인과 결혼해서 현재 8살 된 딸을 두고 있다.

몇 년 전 만해도 인천에는 아랍전문 음식점은 물론 외국인들을 위한 전문음식점조차 거의 없었다. “사람들이 외국 음식을 먹으려면 서울 이태원으로 많이 가요. 인천에서 이태원까지 가까운 거

리도 아닌데요... 예전과 달리 인천국제공항도 있고 송도국제도시도 있어 인천에 외국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들이 쉽게 맛볼 수 있는 맛있는 식당을 열고 싶었어요.” 무역업에서 아랍 전문 음식점을 내게 된 사연이다. 아랍음식점이지만 고객 중 외국인이 70% 한국인이 30%이다. 그는 직접 재래시장에 가서 식재료도 구입하고 레스토랑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매일매일 바쁜 일상을 보낸다. 휴일 없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다보니 힘들고 지칠 때도 많지만 그를 웃게 하는 것은 틈틈이 마음을 나누고 힘을 보태는 봉사활동이다.

“아시아경기대회 때 힘을 보태고 싶어요.” 그는 지난해부터 인천시 민명예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천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인천의 발전상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다. 특히 외국인으로서 송도국제도시의 변화를 보면서 한국의 힘을 느꼈다. 한국이 좋고 인천 생활이 행복한 그는 인종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함께 나누는 봉사활동이 즐겁고 좋다.

“아랍 음식으로 한국에서 요르단의 문화를 알리고 싶어요. 아랍의 이야기가 있는 음식, 아랍에서 지금껏 대를 이어 내려오는 전통 식사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낼 거예요.”

그는 8월 ‘아라베스크’ 송도점(연수구 옥련동)을 오픈한다. 아랍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아랍풍의 소품에서 장식, 식재료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그의 일상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하다.

문의 아라베스크 동인천점 764-0064, 송도점 859-6900



# 8월 공연·전시 Calendar

SUN	MON	TUE	WEN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청소년음악회 오케스트라가 드리는 최고의 행복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 전석 1만원 ☎ 알레나·임실폐니오케스트라 02-6332-9370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방학예술캠프 (이입/AP) 신나는 여름예술캠프) 인천아트플랫폼 / 무료 ☎ 760-1008	2012 SUMMER FESTIVAL 해외초청연주 I 미국 줄리아드 재즈 올스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1층 5만원, 2층 2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2012 SUMMER FESTIVAL 해피콘서트 앙상블 모티브심어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 전석 1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2012 SUMMER FESTIVAL Music & Friends, 서울필하모닉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2012 SUMMER FESTIVAL 러브 콘서트 아도르 듀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 전석 1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방학예술캠프 (이입/AP) 신나는 여름예술캠프) 인천아트플랫폼 / 무료 ☎ 760-1008	2012 SUMMER FESTIVAL Maestro Gum&Virtuoso series II _ 인천시립교향악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 인천시립교향악단 1588-2341  2012 SUMMER FESTIVAL 파니 콘서트 아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 전석 1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방학예술캠프 (이입/AP) 신나는 여름예술캠프) 인천아트플랫폼 / 무료 ☎ 760-1008	2012 자유공원 토요상설공연 자유공원 광장 특설무대 오후 3시 / 무료 ☎ 872-7873, 868-7196	2012 SUMMER FESTIVAL 해외초청연주 II 일본 일본텔레만 챔버 오케스트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피아노 퀸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2012 SUMMER FESTIVAL 세계마 콘서트 성악앙상블 라페스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 전석 1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일렉트릭 아리랑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 전석 1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2012 피크닉콘서트 시리즈 부평아트센터 야외 잔디무대 오후 8시 / 무료 ☎ 500-2000
12	13	14	15	16	17	18
2012 SUMMER FESTIVAL 청소년을 위한 모듬콘서트 인천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2012 SUMMER FESTIVAL 페밀리 콘서트 원미챔버오케스트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 전석 1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박물관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음악으로 들어보는 옛날 옛적 인천이야기" 아트홀 소풍 오후 4시 / 무료 ☎-신포니에타 834-1055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방학예술캠프 (이입/AP) 신나는 여름예술캠프) 인천아트플랫폼 / 무료 ☎ 760-1008	아토챔버오케스트라 연극과 함께하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4시 / 전석 1만원 ☎ 엔터테인먼트 818-5726  어진내(仁川) 청소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씨리재홀 오후 7시 / 5천원 ☎ 010-6345-2904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 및 기념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10시 / 초대 ☎ 중무과 440-2216  여름방학맞이 (청소년 음악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5시 / 전석 1만 5천원 ☎ 500-2000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자가 쇼케이스 창작회과 무대독회 (청사진별곡)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5시 / 무료 ☎ 760-1005	인용예술단 정기연주회 "생상의 동물사육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전석 1만2천원 ☎ 인용예술단 888-8770  케이 챔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씨리재홀 오후 7시 / 1만원 ☎ 010-6345-2904	2012 SUMMER FESTIVAL 색소폰과 오케스트라의 만남 이성환오케스트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 전석 1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황금토끼 더 뽀에로 (영작동화 - 옷지 않는 공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  광명스포니오케스트라의 "해설이 있는 클래식" 부평문화사랑방 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7시 30분 / 전석 3천원 ☎ 505-5995	여름방학특집 인천을 빛낸 음악인-V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원 ☎ 인천신포니에타 819-0505  황금토끼 인천시립합창단의 '오! 뮤지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  여름방학맞이 (청소년 음악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5시 / 전석 1만 5천원 ☎ 500-2000  클래식비타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씨리재홀 오후 4시 / 6천원(학생 무료) ☎ 760-3457
19	20	21	22	23	24	25
핀스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전석 1만원 ☎ 인천음악협회 873-7772  일요국악상설공연 "열두" 여성연희단 '노리꽃'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광역시 875-4644	아동극 '내 몸은 소중해요'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1만원 ☎ 교육극단 상상 577-4677	커피콘서트Ⅵ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아동극 '내 몸은 소중해요'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1만원 ☎ 교육극단 상상 577-4677	인천시립극단 기획공연 <남독열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 무료 ☎ 인천시립극단 420-2790  극단 세헤라자데 '숨은 얼굴 찾기' 부평문화사랑방 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7시 30분 1만 5천원(학생 8천원, 전석 3천원) ☎ 505-5995  극단 세헤라자데 '숨은 얼굴 찾기' 부평문화사랑방 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7시 30분 1만 5천원(학생 8천원, 전석 3천원) ☎ 505-5995	뮤지컬 '광화문 연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 청라아트 1566-6551  인천시립극단 기획공연 <남독열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 무료 ☎ 인천시립극단 420-2790  황금토끼 트리뷰트밴드 <맨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	뮤지컬 '광화문 연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30분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 청라아트 1566-6551  인천시립극단 기획공연 <남독열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 무료 ☎ 인천시립극단 420-2790  황금토끼 인천시립무용단의 전통의 향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
26	27	28	29	30	31	
뮤지컬 '광화문 연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 청라아트 1566-6551  일요국악상설공연 "열두" 여성연희단 '노리꽃'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광역시 875-4644	극단 세헤라자데 '숨은 얼굴 찾기' 부평문화사랑방 갈산2동 주민센터 3층 오후 7시 30분 1만 5천원(학생 8천원, 전석 3천원) ☎ 505-5995  극단 세헤라자데 '숨은 얼굴 찾기' 부평문화사랑방 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7시 30분 1만 5천원(학생 8천원, 전석 3천원) ☎ 505-5995	2012 SUMMER FESTIVAL 해외초청연주Ⅲ 스페인 스페인 말레니엥 합창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 전석 1만5천원 ☎ 1588-2341  극단 세헤라자데 '숨은 얼굴 찾기' 부평문화사랑방 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7시 30분 1만 5천원(학생 8천원, 전석 3천원) ☎ 505-5995	극단 세헤라자데 '숨은 얼굴 찾기' 부평문화사랑방 갈산2동 주민센터 3층 오후 7시 30분 1만 5천원(학생 8천원, 전석 3천원) ☎ 505-5995  가족뮤지컬 '후크상왕'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1만 5천원(단체 1만원) ☎ 811-0500  뮤지컬 '피터팬' 강희문예회관 대강당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1만 5천원(단체 1만원) ☎ 무지개 02-2654-6554	작은 도서관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 무료 ☎ 인천광역시 440-4003  블랙라이트 퍼포먼스극 '불꽃의 무지개'로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1만 5천원(단체 1만원) ☎ 교육극단 불꽃상 819-1002	황금토끼 상금 달콤 음악 여행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3  극단 세헤라자데 '숨은 얼굴 찾기' 부평문화사랑방 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7시 30분 1만 5천원(학생 8천원, 전석 3천원) ☎ 505-5995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자가 쇼케이스 창작 연극 (후부리경간)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5시 / 무료 ☎ 760-1005  2012 자유공원 토요상설공연 자유공원 광장 특설무대 오후 3시 / 무료 ☎ 872-7873, 868-7196  극단 세헤라자데 '숨은 얼굴 찾기' 부평문화사랑방 갈산2동주민센터 3층 오후 7시 30분 1만 5천원(학생 8천원, 전석 3천원) ☎ 505-5995

## 커피콘서트Ⅵ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그윽한 커피향과 감미로운 음악에 취할 수 있는 8월 커피콘서트에 그룹 '해바라기'가 출연한다. 아름다운 멜로디와 따뜻하고 희망적인 가사로 '한국노랫말대상 나라사랑 노랫말상'을 수상한 그룹 해바라기가 이번 공연에서 통기타 음악의 진수를 보여준다.

'사랑으로'를 비롯해 '내 마음의 보석 상자', '사랑의 발걸음' 등 주옥같은 곡들로 관객을 낭만이 가득했던 추억의 시절로 안내한다.

일시 8월 22일(수) 오후 2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1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 2012 자유공원 '토요상설공연'



8월 4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자유공원에서는 신나는 공연이 펼쳐진다. 올해로 3년째 열리는 '자유공원 토요상설공연'은 다양한 공연과 체험·시식행사 등을 통해 인천의 관광산업과 문화예술을 활성화시켜 온 행사다.

올해 '자유공원 토요상설공연'은 체험행사와 시식행사, 공연행사로 부분으로 진행된다. 체험행사는 캐리커처, 녹청자 물레체험, 네일아트, 왕궁공예 등 인천의 문화적 특징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시식행사로 인천의 대표적인 음식인 짜장면, 닭강정, 공갈빵 등이 준비된다. 또 각종 퍼포먼스와 음악, 국악, 댄스, B-boy, 가수, 마술, 마임 등 다양한 공연행사를 마련해 인천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인천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강정, 공갈빵 등이 준비된다. 또 각종 퍼포먼스와 음악, 국악, 댄스, B-boy, 가수, 마술, 마임 등 다양한 공연행사를 마련해 인천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인천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일시 8월 4일~10월 27일 (매주 토요일) 오후 3시~5시 20분

장소 자유공원 광장 특설무대

티켓 어린이 / 어른 균일가 1만5천원

문의 872-7873, 868-7196 (www.artin.or.kr)



- 02일~31일 인천광역시 문화상 수상 작가전 / 인천문화회관 전시실
- 03일~09일 트릭미술관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03일~09일 제14회 그림발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10일~16일 제32회 2012년 물색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10일~16일 제8회 한성만 그레픽게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10일~16일 제5회 빛과 향기 화원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10일~16일 제18회 예원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인천시 문화상 수상 작가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인천문화회관(송의동 소재) 전시실에서 열리는 '인천광역시 문화상 수상 작가전'은 황병식 작가 외 20여 명의 <미술작품>과 이명복 작가 외 10여 명의 <사진작품>, 그리고 랑송만 작가 외 10여 명의 <문학작품>이 어우러

진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하는 <인천시 문화상>의 역사와 명예를 걸고 기획한 전시인 만큼, 작품마다 참여 작가의 프라이드가 느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시 8월 2일~8월 31일

장소 인천문화회관 전시실 (수봉공원 내)

문의 873-5174, 868-7196

## 사랑티켓으로 공연을 즐기자!

인천예총은 8월 인천사랑티켓 공연을 진행한다. 사랑티켓 공연은 공연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아동·청소년(3~24세)과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단체관람 할 경우 공연가격에서 7천원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개인이나 단체 모두 사랑티켓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구매가 가능하다. 단체의 경우 년 1회만 구매할 수 있고, 개인은 연 10회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작품별로 사랑티켓 지원 좌석수가 한정되어 있으니 선착순 마감되기 전에 사랑티켓 홈페이지(www.sati.or.kr)에서 온라인 예매를 해야 한다.



## <인천사랑티켓 8월 작품>

- 아동극\_하늘에서 과자가 내린다면 (7/7~8/26 인천어린이과학관)
- 음악\_여름방학특집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8/18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음악\_청소년음악회 (8/5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음악\_아토 챔버 오케스트라, 연극과 함께하다 (8/14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아동극\_친구가 위험해-신호등 친구들 (8/17 인천서구문화회관)
- 아동극\_내 몸은 소중해요 (8/22 인천서구문화회관)
- 아동극\_가족뮤지컬 '후크선장' (7/18 청소년수련관, 8/29 부평아트센터)
- 아동극\_피터팬-빛그림자 뮤지컬 (8/29 강화문화회관)
- 아동극\_블랙라이트 퍼포먼스극 '행복한 무지개물고기' (8/29 남동문화예술회관)

문의 인천예총 872-7873, www.artin.or.kr, www.sati.or.kr

- 17일~23일 제13회 인천광역시 미술전람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17일~23일 2012 한국교원서각협회 화원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17일~29일 인천조각가 협회전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 24일~30일 제6회 Drawing-숨 누드드로키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전시실
- 24일~30일 황기숙 서사 청구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24일~30일 제6회지경란 정기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24일~30일 존재 그리고 우리 창립30주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무더위 식히는 클래식축제

찌는 듯한 더위, 피서행렬로 가득한 고속도로... 자칫 짜증나기 쉬운 피서철을 음악과 함께 우아하게 보내면 어떨까? 시원한 곳에서 여유있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2012 서머 페스티벌'이 8월 한달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오케스트라와 실내악, 합창, 재즈 등 다채로운 장르로 짜여진 이번 페스티벌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편안하면서도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4개 클래식 공연의 성찬! 올 여름 풍성한 음악의 향연에 귀 기울여 보자.



## 해외초청연주Ⅰ미국 - 줄리아드 재즈 올스타즈

8월 7일(화)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  
1층 5만원, 2층 2만원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 겸 줄리아드 음대 교수와 OB로 구성된 재즈 아티스트들, 가수 알리의 감성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다. 재즈 평론가들로부터 '세계 3대 드러머'로 평가 받고 있는 칼 알렌, 미국 NBC 'Saturday Night Band'로 활동 중인 세계적인 색소폰니스트 론 블레이크가 주축이 되어 공연을 이끈다.

## 해피콘서트 - 모티브 싱어즈

8월 7일(화) 오후 3시 소공연장, 전석 1만원

남성 특유의 힘과 서정을 노래하는 모티브 싱어즈가 청중에게 정감 어린 선율을 전한다.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등지에서 수학한 이들은 전문성과 다양성, 대중성을 기반으로 전문 성악곡을 비롯한 클래식, 성가, 팝, 영화 및 드라마 OST, 재즈, 뮤지컬 등을 들려준다.

## Music & Friend's - 서울필하모닉

8월 8일(수) 오후 5시 대공연장, 전석 1만원

성악가 김혜란 교수, 첼리스트 김봉 교수, 그리고 60여 명의 유능한 연주자들이 대중 속에 사랑받는 오케스트라를 꿈꾸며 시작한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친근하지만 정통적인 음악으로 관객을 찾는다.

## 러브콘서트 - 아도르 듀오

8월 8일(수) 오후 3시 소공연장, 전석 1만원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피아니스트 소현정과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첼리스트 문수형의 무대. 어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모차르트의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주제를 위한 12개의 변주곡, 로맨틱하고 서정적인 베토벤의 로망스 2번 등 다양한 사랑의 음악을 펼쳐 보인다.

## Maestro Gum&Virtuoso series - 시립교향악단

8월 9일(목) 오후 5시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로렌조 가토가 금년새 예술감독이 이끄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의 비루토오조 시리즈 두 번째 무대에 선다. 로렌조 가토는 16세의 나이에 이탈리아 국제 안드레아 포스타치니 콩쿠르 1위를 수상했으며, 2010년~2011년 라이징 스타에 선정되었다.



## 퍼니 콘서트 - 아트

8월 9일(목) 오후 3시 소공연장, 전석 1만원

따분한 음악회가 싫다면 아트의 퍼니콘서트가 제격이다. 미술과 클래식, 축구와 클래식 등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장르가 한자리에서 펼쳐진다. 최수용 마술사의 환상적인 마술을 시작으로 축구 예술가 우희용의 묘기 등이 음악과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 해외초청연주Ⅱ일본 - 텔레만 챔버 오케스트라

8월 10일(금) 오후 5시 대공연장, 전석 1만원

1963년 일본 교토 2세인 노부하라 다게하루(한국명 강무춘)에 의해 창설된 일본텔레만 챔버 오케스트라가 첫 인천 공연을 연다. 오사카 문화제상, 음악 평론가상, 산토리 음악상 등 수많은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모던 악기와 바로크 악기를 바꾸어 가면 연주할 수 있는 동양의 유일한 연주단체다.

## 씨네마 콘서트 - 성악양상블 라페스타

8월 10일(금) 오후 3시 소공연장, 전석 1만원

이태리어로 '축제'라는 뜻을 가진 성악 양상블 라페스타의 재미와 감동이 있는 음악회다. 해외에서 쌓은 뛰어난 실력의 성악가들이 유명 오페라, 뮤지컬, 영화, 팝 등을 넘나들며, 멋진 퍼포먼스와 드라마를 짜임새 있는 연출로 보여준다.

## 해외초청연주Ⅲ중국 - 베이징피아노퀸텟

8월 11일(토) 오후 5시 대공연장, 전석 1만원

중앙민족대학의 실내악단 '베이징 퀸텟'은 실내악의 보급, 전파와 발전을 위하여 음악학부 교수들과 중앙민족 가무단 소속 단원들로 구성, 2006년에 성립되었다. 이들은 중국 북경 등에서 사회 공익활동과 주요 음악회를 통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 해외초청연주Ⅳ오스트리아 - 일렉트릭 아리랑

8월 11일(토) 오후 3시 소공연장, 전석 1만원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이 아시아와 유럽의 음악적 교류를 위해 설립한 앙상블 이쿨트의 색다른 음악회다. 전통과 현대, 서양과 동양이라는 주제 아래 관객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선보인다.

## 청소년을 위한 모듬콘서트

### - 인천 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8월 12일(일) 오후 5시 대공연장, 전석 1만원

시민들의 큰 사랑과 성원을 받는 인천 뉴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청소년을 위한 모듬콘서트를 연다. 이번 공연에는 테너 전인근, 소프라노 김은정, 재즈싱어 이유나, 트럼펫터 백종성과 함께 우리 귀에 익숙한 음악들을 들려준다.



## 패밀리콘서트 - 원미챔버오케스트라

8월 12일(일) 오후 3시 소공연장, 전석 1만원

2007년 설립해 인천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우뚝 선 원미챔버오케스트라가 부모와 아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패밀리콘서트를 준비했다. 문화예술진흥공로상을 수상한 정미희 지휘자의 지휘 아래 바이올리니스트 양유진, 떠오르는 샛별 천소희가 무대에 선다. 그리고 '드라마OST모음', '전래동화민요모음', '동물의 사육제' 등 쉽고 흥미로운 곡들을 중심으로 연주한다. 초중고 아이들을 둔 부모라면 가장 주목해야 할 음악회다.

## 색소폰과 오케스트라의 만남 - 이성한 오케스트라

8월 17일(금) 오후 5시 대공연장, 전석 1만원

이성한 오케스트라와 코리아 색소폰 앙상블이 한자리에서 조우한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수학한 색소폰 연주자 이승동, 최관식 협연으로 '카르멘환타지', '작은 차르다' 등 열정적인 곡들을 들려준다.

## 해외초청연주V스페인 -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8월 28일(금) 오후 7시 30분 소공연장, 전석 1만원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은 한국에는 스페인 노래를, 스페인에는 한국노래를 전파하는 아주 특별한 합창단이다. 단원 전체가 스페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50여 곡의 한국노래 레파토리를 가지고 무대 위에서 한복과 수트를 번갈아 입으며 한국의 가곡과 민요, 스페인의 오페레타 장르인 파르수엘라 등을 자유자재로 선보인다.

## 피크닉콘서트 시리즈 - 판타스틱 '파워풀 보이즈'

8월 11일(수) 오후 8시, 부평아트센터 야외 잔디무대

클래식과 퓨전을 넘나드는 정통 카운트 테너 '루이스초이'와 목소리 하나만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줄 아는 대한민국 대표 남성 보컬그룹 '스윗소로우'가 출연한다. 주말 저녁, 감성 충만한 감미로운 목소리로 색다른 감동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 도시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글. 정경숙\_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_자유사진가



제고 앞 150×55cm acrylic on canvas, plastic sheet cutting, 2011

일상의 사연을 깊이 잠재운 밤은, 보는 이로 하여금 묘하게 끌리도록 하는 매력이 있다. 어둠을 밀어내고 하나둘 피어오르는 불빛. 태양 아래 감춰졌던 도시의 밤은 사치스레 비치기도 하고 느닷없는 검박함으로 애잔히 파고들기도 한다. 작가 박상희(44)는 이러한 도시의 야색(夜色)을 화폭에 담는 데 열중하고 있다. “화려한 인공의 빛을 담은 야경은 도시의 정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한낮의 보편적인 빛보다 도시의 색(色)을 정확히 보여주고 문화적인 독창성을 부각시키지요. 도시의 밤에는 낮에는 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천에서 개인전 ‘야경산책(A Night Walk)’을 열었다. 그가 그리는 인천의 밤은 진솔하면서도 따스하고 정감있다. 가로등 불빛이 흘러나오는 고즈넉한 골목길,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분주히 지나가는 자동차 등 소소한 일상이 독특한 회화적 환상으로 녹아내린다. 캔버스에 플라스틱 시트지를 붙이고 칼로 형태를 따 올려내는 기법은 만지고 싶은 촉각적 반응을 일으킨다. 작가의 상상력으로 살아있는 공간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인천은 서울이 지닌 대표성이나 번듯함과는 대조적으로 소시민의 삶이 포장되지 않고 날것 그대로 보여지는 도시입니다. 마치 저예산으로 만든 비주류 영화를 보듯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 ‘월미도(2011)’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서열을 매기고 그에 따라 자생력을 잃어가는 도시에 대한 반성이다. 디스코 광광으로 대표되는 월미도 놀이동산은 화려한 대형 테마파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다소 궁상맞고 후줄근하다. 하지만 작가는 오히려 이를 인간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했다. 교복을 입은 앳된 소녀, 중년의 아줌마 아저씨들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시절이 깃들어 있는 곳이 월미도 아니던가. 그는 동구 송현동에서 태어나 제물포 등을 거쳐 현재 송도국제도시에 살고 있다. 그에게 인천은 살아 온 시간이 켜켜이 쌓인 기억의 보물창고다. 지금은 ‘파리바게트’로 바뀐, 아빠가 딸이 좋아하는 크림빵을 사 오시곤 했던 제물포역 앞 ‘독일제과’. 일 년에 두어 번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인현통닭집’ 통닭. 기름이 흠뻑 배인 그 종이 냄새는 아직도 코끝에서 떠나질 않는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인천은 시간여행을 하듯 시계바늘을 과거로 돌려 우리네 삶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인천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에 공감하길 바랍니다.”







## 메달사냥에 나선 ‘인천의 태극전사들’



‘50억 지구촌의 스포츠 화합 한마당’인 ‘제30회 런던올림픽’이 시작됐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목표성적으로 내세운 ‘10-10(금메달 10개-종합 10위 이내)’ 달성의 주춧돌을 놓을 ‘금빛 후보’ 10인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인천선수들은 누구일까. 메달 획득이 예상되는 인천 선수, 그들을 소개한다.

글. 김윤경\_본지 편집위원

광복 이후 최초로 태극기를 달고 지난 1948년 런던올림픽에 출전했던 한국은 374명(선수245명)의 선수단을 구성해 64년 만에 다시 런던땅을 밟았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10개의 금메달을 획득, 종합 10위를 수성하겠다는 목표로 필승의 결의를 다졌다.

이번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인천연고 선수는 복싱 신종훈, 요트 레이저급 하지민, 펜싱 사브르 이라진, 하키 차종복과 핸드볼의 정한, 유동근, 김온아, 유은희, 조효비 등 모두 9명이다. 또 양궁 박성수 코치, 펜싱 이육재 코치 등 2명은 임원으로 런던올림픽에 출전했다.

복싱의 신종훈은 이번 런던올림픽 복싱 중목에서 우리나라에 24년 만에 금메달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라이트 플라이급 세계랭킹 1위인 신종훈은 계체에 유리하고, 스

피드와 체력까지 삼박자를 갖춰 메달권에 가장 근접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적수가 없는 하지민은 한국 요트대표팀의 유력한 올림픽 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미 2010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지난 2월 뉴질랜드에서 열린 세일 오클랜드 2위를 차지해 국제 대회 경험도 풍부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다.

또 특유의 패기로 메달사냥에 나선 펜싱의 이라진은 2010년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지난해 열린 제92회 전국체전에서도 1위를 차지한 국내 최강자다.

하키의 차종복은 지난 3월 런던 올림픽 세계 예선 결승전에서 아일랜드에 3-2 역전승을 거두며 5회 연속 올림픽 진출에 성공한 남자하키 대표팀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하키 대표팀의 만형인 차종복은 수비능력이 뛰어나고, 경기흐름을 폭넓게 잘 읽어낸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핸드볼에서는 남자팀의 정한, 유동근과 강력한 메달 후보인 여자 핸드볼팀의 김온아, 유은희, 조효비가 국가대표로 인천의 명예를 걸고 시합에 나섰다.

내년 전국체전과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오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펼쳐지는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힘찬 비상을 기대해본다.



### 지도자들이 말하는 “우리 선수는~”

**복싱 신종훈** 현재 신종훈 선수의 컨디션은 최고다. 다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이후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이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권투선수들은 체급 때문에 체중조절에 많이 신경 써야 하는 데, 신종훈 선수는 체질적으로 몸무게 변화가 크지 않아 다른 선수들에 비해 심리적으

**요트 하지민**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한 하지민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한국 해양대학교 시절에는 국내대회 1위를 차지했다. 하지민 선수는 경기의 상황판단과 환경적응이 빠르다. 또 하루 사이클을 40km를 달릴 정도로 자신의 몸 관리에도 철저하다.

〈변우섭 감독〉

**펜싱 이라진** 하체근력이 좋은 이라진 선수는 빠른 발과 긴 공격이 장점이다. 경기에 임할 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상대방 공격을 막고 되받아 치는 빠라드 능력이 좋다. 침착하게 진행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장기철 감독〉

**하키 차종복** 34살의 나이로 대표팀 최고 고참인 차종복 선수. 무엇보다 수비력이 뛰어나고, 경기흐름을 조율하는 능력도 대단하다. 때문에 이번 올림픽에서 대표팀의 만형 역할을 맡았다. 적지 않은 나이에 출전한 차종복 선수는 ‘마지막 올림픽’이라는 생각을 다해 메달을 걸고 오겠다고 다짐했다. 〈장정민 감독〉

**남자 핸드볼** 유동근 선수는 스피드가 빠르고 수비력이 뛰어나다. 정한 선수는 어느 경기나 수비, 공격에서 자신의 몫을 확실히 잘 해내는 선수다. 두 선수 모두 침착하고 차분해서 경기결과도 좋을 것이다. 〈박한석 코치〉

**여자핸드볼** 김온아 선수는 팀의 찬스메이커로 스탠딩 슛, 런닝 슛이 뛰어나다. 스피드도 빠르고 일대일 상황에서 페인트가 좋아 상대편이 막기 쉽지 않다.

왼손잡이인 유은희 선수는 대형 스트라이커다. 큰 신장에서 뿔어나오는 파워 넘치는 룡슛이 장점이며, 승부욕이 강하다. 조효비 선수는 윙 플레이어로 패스트브레이크가 강하며, 슛 감각도 타고났다. 〈임영철 감독〉





## “영킨 실타래가 하나둘 풀리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은 지난 7월 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시장은 지난 2년을 시의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고 심하게 영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간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시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객관화하고 해결해나가는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은 “지난 2년은 토목건설 부문의 예산은 줄이고 교육·복지 예산을 늘리려고 노력했다”며, “국내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이 찾아오고, 문화·복지를 통해 사람이 찾아

오는 인천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 송 시장은 남은 2년 동안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지방재정 체제 개편을 위한 국회 지방재정 특위를 구성해 국가 차원의 인천지원을 받아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2년간 업무 성과에 대해 “송도·청라·영종 등 국제도시

에 대기업, 금융기관, 쇼핑몰 등이 들어섰고 앞으로도 속속 들어설 예정”이라며, “지난 2년간 총사업비 기준 16조원 이상 투자를 유치했고 앞으로 5년간 최소 10만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올해 명문대 입학생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중학교 졸업 뒤 타 지역 유출보다 유입 학생 숫자가 많아졌다”며 “세계 명문 대학 분교를 이미 유치했고 자율형 사·공립고가 대입생을 배출하게 되면 인천은 전국의 어머니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교육 분야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인천교통공사 퇴직금 누진제 폐지, 인천대 법인화, AG 주경기장 주요 국비 확보 등도 주요 업무 성과로 내세웠다. 송 시장은 “기업과 투자 유치에 명운을 걸고 최고 성장률,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겠다”며 향후 시정 방향을 밝혔다.

문의 : 시 대변인실 ☎440-3066

### 인천대교 개통 1천일 이벤트

인천대교(주)는 8월10일까지 인천대교 개통 1천일을 맞아 ‘제1회 인천대교 온라인 사진공모전’을 연다. 공모 희망자는 ‘인천대교와 함께 한 1천일간의 기록’이란 주제에 맞게 인천대교와 관련된 사진을 촬영해 홈페이지(www.incheonbridge.com)에 올리면 된다. 공모 기간은 8월 말까지다. 수상자에게는 캐논 EOS 60D 카메라, 아이패드2 32G, 하이패스 단말기와 20만원 충전권, 폴라로이드 사진기, 주유상품권 등 푸짐한 상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인천대교 기념관 1층 로비에 전시되고 인천대교 홍보물 제작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인천대교 페이스북(www.facebook.com/incheonbridge)에서는 8월 10일까지 개통 1천일 축하 댓글달기 행사가 열린다. 문의 : 인천대교 ☎745-8200

###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인천 2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70.4%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3일 민주통합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44개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2012 당초 예산 기준)에 따르면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70.4%로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88.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5년 전인 지난 2007년 67.7% 수준이었다가 2008년 71.2%, 2009년 75.7%, 2010년 70.7%로 70%대를 회복한 뒤 지난해에는 65.7% 수준으로 뚝 떨어졌었다. 하지만 인천 시내 10개 군·구의 재정자립도는 중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50% 미만 수준으로 전국 평균치(52.3%)에 미치지 못했다.

문의 : 시 세정과 ☎440-2542



### 김봉길 감독, 정식감독 승격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의 김봉길 감독 대행이 ‘대행 꼬리표’를 떼고 정식 감독으로 승격됐다.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주인 송영길 시장은 지난 7월 16일 김봉길(46) 감독대행을 정식 감독으로 승격시켰다. 송 시장은 이날 “김 감독이 어려운 시기에 감독대행을 맡아

팀을 강등권의 위기에서 탈출시키는 등 노고를 인정해 정식감독으로 승격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감독은 지난 4월 11일 허정무 전 감독의 사퇴로 감독대행에 오르지 3개월여 만에 정식감독으로 인천을 이끌게 됐다. 김 감독은 “고향 팀의 지휘봉을 잡게 돼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좋은 경기내용을 팬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평동중과 부평고 출신의 김 감독은 U-17, U-19 청소년 대표와 88년, 95년 월드컵 대표 등을 거쳤다.

문의 : 시 체육진흥과 ☎440-4072



### 중소기업, CIS서 3천700만달러 상당 수출 상담

우리시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CIS(독립국가연합: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장 공략을 위해 파견했던 ‘인천광역시 CIS 시장개척단’이 현지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이번 ‘CIS 시장개척단’은 김진영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관내 중소 수출업체 10개사로 구성됐다.

지난달 3일부터 11일까지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노보시비르스크), 우크라이나(키예프)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2건 1천670만9천달러, 노보시비르스크 44건 1천18만8천달러, 키예프 39건 1천43만7천달러 등 총 135건 3천733만4천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 이 중 1천375만달러 계약이 예상되며, 5건 203만5천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문의 : 시 중소기업지원과 ☎440-4282



### 미추홀참물 생산량 대폭 늘려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행사에 대비해 미추홀참물 생산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6억9천여만 원을 들여 지난 달 시설 확충을 마쳤다. 연간 200만병 생산하던 것을 오는 2014년 1천만병까지 늘릴

계획이다. 생산품목도 기존 350㎖ 용량에서 350㎖, 500㎖, 1천 800㎖로 다양화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미추홀참물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주요 행사가 다가옴에 따라 수요 증가에 대비해 생산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시에서 생산·공급되는 수돗물인 미추홀참물은 지난 2010년 7월 먹는 물 적합 판정을 받고 공공행사에 홍보용으로만 제공하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향후 판매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문의 : 시 상수도사업본부 ☎720-2652



### ‘닥터헬기’ 연평도까지 확대 운항 추진

우리시의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항이 옹진군 연평도 일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옹진군 섬 주민들을 위해 현재 70km인 닥터헬기의 운항범위를 130km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운항범위가 확대되면 현재 백아도와 울도까지 운항하는 닥터헬기는 연평도의 환자까지 이송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접경지 문제 때문에 대한항공, 국방부와 운항범위 확대를 협의 중”이라며, “올 하반기 중에는 운항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전쟁이나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소를 내년에는 대청도 7곳과 소청도 2곳에 추가 설치하고, 2014년에는 백령도에 비상진료소 26곳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시 보건정책과 ☎440-2712





### 국립 인천대 국비 내년부터 확보

우리시는 인천대학교가 내년 국립대 출범과 동시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우리시가 지난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와 맺은 양해각서에는 국립대 법인 출범 이후 6년차부터 국비를 지원하기로 됐다. 그러나 시는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과부를 설득, 교과부가 기존 양해각서에 대한 입장을 바꿔 이 같은 방침을 이끌어냈다. 교과부는 우선 내년에 206억원을 지원하고, 2014년 250억원, 2015년 299억원, 2016년 351억원, 2017년 409억원으로 매년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인천대는 교과부의 국비 지원액과 더불어 인천시비 300억원을 지원받는 등 향후 5년 동안 평균 600억원의 지원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의 : 시 기획관리실 ☎440-2177



###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확대

우리시는 8월부터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시는 부모가 직접 나서서 어린이집의 환경과 위생, 안전 등을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모니터링단을 출범했다. 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2인 1조가 매월 1차례, 미흡 시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벌인다. 기존 단원 14명, 대상 어린이집 210곳에서 8월부터는 단원 109명, 대상지 560곳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지역 전체시설의 50%까지 모니터링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인천에는 지난 6월말 기준 국공립 103곳, 민간 773곳, 가정 1천105곳 등 총 2천49곳의 어린이집이 있다.

문의 : 시 보육정책과 ☎440-2894



### 휴가철 숙박 불편민원 신고 센터운영

우리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31일까지 하계 휴가철 숙박 불편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숙박 불편민원 신고센터는 시·군·구 위생업무 담당부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주말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 근무시간 이후는 당직실과 연계하여 상시 운영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숙박 불편 민원 신고센터에서 처리하는 주요 민원사항은 숙박업소 종업원의 불친절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 거부 행위, 부당 숙박요금 징수 행위 등 불편사항과 더불어 관광객을 위한 지역 관광 정보 안내, 숙박업소 정보안내, 외국어 서비스 통역 안내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 시 위생정책과 ☎440-2782



### 2012 대사부인 초청 인천관광·문화체험

(사)한류세계문화교류협회는 지난 7월 7일 30개국 주한대사 부인 45명을 초청해 메디컬 투어를 실시했다. 오후 4시부터 길병원 뇌과학 연구소, 암센터, 건강증진센터, VIP병실등을 방문하여 첨단 장비와 우수한 시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독립된 검진 공간과 외국인 환자에 불편함이 없는 의료진료 등을 인상 깊게 봤다. 이에 앞서 대사 부인들은 한류세계문화교류협회에서 제작한 우리나라의 전통의상 배자를 개량한 한복을 입고 월미전통공원에서 다양한 전통 체험과 전통 음식을 시연했다. 이후 을왕리로 자리를 옮겨 잠시나마 해변을 산책했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440-2872

### 인천~백령도 2천급 대형 여객선 취항

인천~백령도 항로에 대형 여객선이 취항했다.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2천71급)'가 지난 7월 27일 8시50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첫 출항했다. 현재 인천~백령도 항로에는 299~396급 여객선 3척이 운항 중이지만 풍랑과 안개 등으로 연평균 79일 결항해 이용객의 불편이 제기됐다. 우리시는 이번 하모니플라워호 취항으로 이 항로 연평균 결항일이 29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차량을 60대까지 실을 수 있어 농수산물과 군부대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에 취항한 여객선은 매일 한 차례 인천과 백령도를 왕복한다. 기존에 운항되던 여객선 3척 가운데 2척과 신규 도입 여객선 1척 등 총 3척이 이 항로를 다닐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 여객선 취항으로 섬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시 도시발전지원과 ☎440-4984

### 경로당 1천300여 곳 양곡 지원

우리시는 지난 7월부터 관내 경로당 1천348곳에 정부 양곡을 지원하고 있다. 연간 읍면소재 경로당에 20kg 7포대씩, 동 소재 경로당에는 20kg 6포대씩 보낼 예정이다. 공급대상은 인천시 관내 정부양곡 지원을 희망하는 경로당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경로당은 읍·면·동에 신청하면 매월 택배회사를 통해 배달받을 수 있다. 시는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구 노인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를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프로그램 관리자로 지정해 노인 여가·문화, 건강, 평생교육, 부업,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 시 노인정책과 ☎440-2814



###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추진

우리시가 도시 구도 변화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에 나섰다. 시는 인천국제공항철도, 수인선 개통 등 지역 교통 체계 변화와 연계해 시내 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신도시 입주 가속화와 공항철도 개통, 수인선 1단계 개통 등 지역 구도 변화에 맞춰 버스 노선 수요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철도 검단역 개통,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등 추가 변화도 예정돼 있다. 시는 10개 구·군을 돌며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달 안으로 최종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 오는 10월 20일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이 끝나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내에는 207개 노선 2천300대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다.

문의 : 시 버스정책과 ☎440-3954

### 수입쇠고기 한우둔갑 판매 특별단속

우리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입 쇠고기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소비자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우고기를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음식점, 마트 내 식육코너 등에 대해 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육우고기 등을 한우고기로 속여 파는 행위와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파는 행위 등으로 원산지 표기내용과 실제 원산지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가 의심되는 쇠고기의 경우 수거한 뒤 유전자 검사를 통해 거짓표시여부를 가려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문의 및 신고 : 인천 특별사법경찰과 ☎440-3378

### “흥겨운 장터, 분위기는 덩입니다!”

기타를 메고 노래하는 가수들의 뒷배경이 멋진 조명과 화려한 무대가 아닌, 고기가 잔뜩 진열되어 있는 정육점이다. 7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찜통같은 한낮에 용현시장에서 흥겨운 미니 콘서트가 펼쳐졌다. 시장을 찾은 사람들과 상인들의 눈길과 발길을 끌어 모은 이날 공연은 남구학산문화원 주최로 열린 '2012 게릴라 아트콘서트'다. 뜻하지 않게 시장 한복판에서 덩으로 얻은 즐거운 공연은 8월과 9월, 학교와 산업 단지 등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시민과 학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언제 어디서 마주칠 줄 모르는 흥겨운 공연, 무더위로 답답한 마음에 조금은 여유를 갖게하지 않을까.

문의 : ☎866-3994



인천광역시의회 제6대 후반기의회 이성만 의장

“중앙정부 역차별 시정에 앞장”



“리더로서 의장이 아니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지원자, 어시스턴트로서 의장이 되려하며,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으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생각입니다”

제6대의회 후반기의회를 책임지게 된 이성만 의장(부평구 제1선거구)은 자신이 추구하는 의장상을 이렇게 밝혔다.

이 의장은 의장으로서 중앙정부의 역차별을 반드시 시정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다.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만 받았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은 전혀없기 때문이다. 혐오·기피시설인 쓰레기매립장과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화력발전소, LNG기지가 모두 인천에 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도 중앙정부의 차별없는 지원을 촉구 할 생각이다. 2002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른 부산과 세계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한 대구, 2018년 평창올림픽에 준하는 지원요청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매일 교대로 국회와 중앙정부를 찾아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의장은 인천시가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도로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가득하다. 지방세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시 내부적으로도 노력하지만 필요하다면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결하겠다는 아심찬 각오다.

이 의장은 후반기의회를 이끌어갈 의정방향을 ‘정책의회’, ‘열린의회’, ‘책임의회’로 정했다. 민의를 바탕으로 정책의회를 만들어 시민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에 힘을 쏟아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열린의회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주민간 갈등요소였던 루원시티, 월미은하레일, 영종하늘도시 등에 대해 합리적 해결차원으로 공청회, 설명회, 현장방문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이 의장은 책임있는 의정활동에도 방점을 찍었다.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집행부와 함께 하고 공유하면서 시의회의 책임감을 키우겠다는 생각이다. 책임의정이 실천되면 월미은하레일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장은 하반기 시의회를 이끌어갈 수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당부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시민들의 성원만이 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간입니다. 시의회에 대해 잘한 부분은 격려를 하고, 잘못된 것은 날카로운 비판이 있어야 의회가 성숙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의장은 의회가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해 오늘도 시민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다.

제6대 하반기 시의회 닷 올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7월 6일 제6대의회 하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6대의회 하반기 의정을 이끌 의장에는 이성만 의원을 선출했다. 제1부의장에는 김영분 의원, 제2부의장에는 이상철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재용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범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승희 의원, 산업위원회 위원장 허인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태 의원을 선임했다. 제6대 후반기의회는 201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친다.



김영분 제1 부의장



이상철 제2 부의장



구재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승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허인환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태 교육위원회 위원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당선 소감

**김영분** 제1 부의장

“조력자로 어머니 역할 하겠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 의원들이 추구하는 정책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후반기의회의 의정활동 3대 원칙이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

**이상철** 제2 부의장

“시의회 한 단계 발전에 노력”

시의회를 한 단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재정위기 극복,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동료의원들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구재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소통으로 올바른 정책판단 하겠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시와 시의회가 소통해 올바른 정책판단을 할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욱이 시의회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

**이용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2014 인천AG 중앙정부 지원 아꼈겠다”

시민과 소통하면서 꼼꼼히 시정을 챙기겠다. 후반기의회에서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박승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문화, 복지 사업 꼼꼼히 챙기겠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인천을 저력을 보여주겠다. 문화, 복지 부문의 사업도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선 대안을 마련하겠다.

**허인환** 산업위원회 위원장

“집행부 견제와 감시역할 충실”

의회의 본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하고, 위원들간 주장이 엇갈릴 경우 이를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지역재개발, 재건축 원활한 추진”

재정난으로 울스톱된 지역재개발, 지역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영태** 교육위원회 위원장

“수능 끝까지 오명 벗도록 최선”

인천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겠다. 인천시가 수능끝째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





## 생활정보

### 한시(漢詩) 수강생 모집

2012 부평향교 문화학교에서는 한시(漢詩)수강생을 모집한다. 관심있는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

대 상 : 한시에 뜻이 있는 분

기 간 : 연중 계속 강의 예정

강의시간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14:00~16:00

강의내용 : 한시 작시법 및 작시요령, 한시의 평측도 이해 등 한시전반

접수기간 : 7월 10일~8월 31일

강의장소 : 부평향교 3층 강의실

수강료 : 무료

모집인원 : 30명

문의 : 541-2924

### 영종도서관 8월 문화프로그램

영종도서관은 8월 동안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한다. 관심 있는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

#### 8월 문화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기간	장소	대상
전시	독서모토제니硯 책과의 눈 맞춤	8월 1일(수)~9월 28일(금)	꿈자람터 (1층 어린이실)	전체
	영종도서관 2012 어린이 동시화 展	8월 1일(수)~8월 31일(금)	1층 로비	전체
	감성충전 시문학도서展	8월 1일(수)~8월 31일(금)	어문학실	
상시	어린이독서퀴즈, 골든 Book을 올려라	8월 1일(수)~8월 31일(금)	꿈자람터 (1층 어린이실)	초등
	빛그림무지개 「영상동화 읽어주기」	8월 4일, 18일(토) 11:00~12:30		유아/어린이
	행복 전하는 동화배달부 - 찾아가는 동화 읽어주기	8월 16일(목) 15:00~17:00	인천보라매아동센터 인천 중구 구립 해송노인요양원	-
	도서관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책나라 여행	매주 금요일 16:00~16:50	꿈자람터 (1층 어린이실)	유아/어린이
특별	영종도서관 어린이 남극일정대 - 영종도서관 2012 여름독서교실	8월 7일(화)~8월 10일(금) 09:00~12:00	소극장, 세미나실2	초등 3~4
	한명석 작가 특강	8월 16일(목) 13:00~15:00	세미나실 1	독서회 회원
	영종도서관 2012 북스타트(BookStart)	8월 매주 금요일 10:00~14:00	꿈자람터 (1층 어린이실)	유아
	청소년 영어 Book Club	8월 매주 목요일 18:00~20:00	소극장 및 세미나실	중등

문의 : 745-6000

### 2012 적성진로탐색 ‘I have a dream’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청소년들을 위한 2012적성진로탐색 ‘I have a dream’ 참가자를 모집한다.

일시 : 9월 1일(토) 9:00~12:30

장소 : 인천문예전문학교(인천 부평구 소재)

대상 : 인천관내 중1~고3 청소년 100명

(푸드스타일리스트, 뷰티플래너, 바리스타, 소믈리에 – 과정별 25명 선착순 접수)

※단체접수는 1단체 및 1개교 최대 10명으로 제한

#### 직업의 이해

• 직업체험하기(푸드스타일리스트, 뷰티플래너, 바리스타, 소믈리에)

#### 관련 진로 및 자격증 소개

• 모집기간 : 7월 16일(월) ~ 8월 3일(금)

•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i-youth@inpia.net), 팩스(465-6826) 선착순 접수

• 확정명단 공지: 8월 17(금) 개별통보

• 참가비 : 1만5,000원 → 참가자명으로 입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100-025-221545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문 의 : 722-9153

### 통합적 중재 프로젝트 진행

인천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집중하지 못하고,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위해 ‘통합적 중재 프로젝트(Project)’를 진행한다. 관심있는 학부모들의 참여를 바란다.

사업일정 : 4월 ~ 11월

#### 사업내용

구분	일정	시간
미술심리지도	3, 4째 주 화요일	오후 4사~5시
인지놀이활동	3, 4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3시 10분
사회성향상훈련	4째 주 수요일	오후 3시 15분~4시
부모교육	월1회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 사업대상

• 병원에서 ADHD진단을 받은 초등학생

• 산만하고, 과잉행동을 보이는 초등학생 중 본 센터에서의 심리검사 및 상담을 통해 임상범위 결과가 나온 아동

문의 : 560-5006, 5039

### 몸과 마음이 시원한 가을학기 회원모집

미추홀문화회관은 제45기 가을학기 회원모집을 시작한다. 무료특별기획 강좌와 1일특강, 단기특강, 공개강좌 등 다채로운 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강좌기간 : 9월 1일~11월 23일 (3개월) \*개강 후 중도수강 가능

접수기간 : 7월 30일~9월 1일

장소 : 미추홀문화회관 – (구) 인천여고

대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문의 : 765-0220, 0250, www.mchart.co.kr, twiter.com/mchart0250

#### 문화시민 무료 강좌 (3개월 과정)

어린이	- 요돌과 핸드벨 (요돌전문강사 박명옥) - 어린이 한자교실 초급반 (한자자격검정 전문강사 최종영)
성인	- 서예초급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최종영) - 주부 연극 & 뮤지컬 (인천시립대 연기예술학과 강사 임기원) - 몸매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성인발레 (발레전문강사 이소연) - 드로잉 기초부터 완성 (서양화가 라선) - 수필창작과 문학의 이해 (인천대 객원교수 김준기) - 디캐 필캐 사진 촬영 (전 인천사진협회장 조만년) - 한국무용 (금빛평생교육자원봉사 박영숙) - 솔림미즈밸리댄스 (밸리댄스 전문강사 공병순) - S라인 댄스클리닉 (재저사이저 전문강사 김경민) - 성인영어회화 초급반 (영어회화전문강사 김나연) - 성악교실 (성악가 조와숙) - 하루의 마무리, 눈여와 도덕경으로 세상읽기 (인천대 국문과 객원교수 김준기)

#### 신나고 활기찬 야외수업

강좌명 : 어린이 골프교실

대상 : 초등학생 이상

레슨비 : 3개월 15만원

일시 : 화, 목, 토(주3회) 08:00~21:00사이 개별레슨

문의 : 765-0250

### 무료로 영어배우세요

동구 영어교육원은 무료로 영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주요강좌 : 무비영어, 영어놀이, 원어민회화, 파닉스 등 30개 프로그램

수강기간 : 9~11월(반별 12주차)

수강료 : 무료(동구청 전액지원)

접수기간 : 기존회원(8월 6일~10일), 대기회원(8월13일), 신규회원(8월14일~17일)

주관 : 동구청소년수련관

문의 : 772-7905

### 미추홀도서관 8월 행사

미추홀도서관은 8월 도서관 행사를 연다. 방학을 맞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 애들아, 숲에서 놀자

일시 : 8월 11일(토) 10:00~12:00

장소 : 인천대공원

대상 : 초등3~4학년

내용 : 나무와 풀 관찰, 생태놀이 등

문의 : 440-6662~5

#### 여름방학특강

일시 : 7월 30일(월)~8월 23일(목)

장소 : 미추홀도서관 세미나실2(3층), 평생교육실(2층)

대상 : 초등 1~6학년

구 분	프로그램명	내 용	기간
1~2학년	재미있는 수학놀이	도형 만들기, 퍼즐놀이 등을 통한 수학 쉽게 이해하기	7월 30일(월)~8월 20일(월)매주 (월)오후3사~4시 30분
1~3학년	생각이 통통신나는 글쓰기	일기쓰기, 편지쓰기 등 편안한 생각의 전개, 아이들의 생활을 글로 나타내기	7월 31일(화)~8월 21일(화)매주 (화)오전10사~11시 30분
4~6학년	북아트로 떠나는 미술관 여행	오르세 미술관과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의 작품을 감상하고 책으로만들기	8월 2일(목)~8월 23일(목)매주 (목)오전10사~11시 30분
	체인지 리더십(樂)으로 리더하라	관계형성을 위한 셸프리더십,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기술 익히기 등	8월 2일(목)~8월 23일(목)매주 (목)오전10사~11시 30분

문의 : 440-6662~5

#### 현대프레스플라워협회 회원전

일시 : 8월 9일(목)~9월 2일(일)

장소 : 미추홀도서관 1층 미추홀터

대상 : 전체

내용 : 압화그림 및 설치작품 전시회로, 회화로 승화된 압화작품 전시회

문의 : 440-6643

#### 북스타트 아기 천사들의 목(木)소리

일시 : 6월~12월 매주 목요일 2회 11:00, 15:00

장소 : 미추홀도서관, 1층 꿈나무터

대상 : 인천시 2012년 출생영아, 만 18개월 영유아 및 부모

내용 : 동화구연 후 손놀이, 신체놀이, 음악놀이, 미술놀이 등

문의 : 440-6647



울목도서관은 8월 시민에게 유익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다. 문화향유기  
그리고, 목마르다면 울목도서관 문화행사에 참여해 보자.

## 문의 : 770-3804

일 시	고전 작품	강사	비고
8월 2일(목) 오후 2시	산 (이효석)	문학작가 이성재 (수필가)	지역주민 누구나/ 사전 방문 및 전화 접수 (50명 내외)
8월 9일(목) 오후 2시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8월 17일(목) 오후 2시	밤길 (이태준)		
8월 23일(목) 오후 2시	토끼이야기 (이태준)		

문의 : 770-3812

문의 : 721-2310, 2330

## 문의 : 440-2813

2012년 8월 29일(수) - 31(금)  
2012 인천공항 Sky Festival  
<http://www.skyfestival.kr>

1일차 / 8.29(수)	K-pop 페스티벌
2일차 / 8.30(목)	뮤지컬 콘서트
2일차 / 8.30(목)	클래식 콘서트

문의 : 440-4832, skyfestival.kr

##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woman and two young girls. The woman, on the left, wears a headscarf and a patterned dress, looking directly at the camera with a serious expression. She is holding two young girls, one in front of her and one slightly behind her. The girls are also looking at the camera. The background is dark and indistinct.

문의 : 010-5400-0897



**신청방법** ①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 (<http://no-driving.incheon.go.kr>) 인터넷 신청  
②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



- 1 자동차세 5% 감면
-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
- 3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 4 남산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 5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시 가점 부여



**1 인천승용차요일제카드 혜택**  
(신한 Oiling카드)

- 자동차세 3% 추가 할인
- SK에너지 주유시 리타당 80~120포인트 적립
- 버스, 택시, 지하철 3~7% 할인
- 맥스무비, 인터파크, YES24 예매할인
- 테마파크 입장권 및 자유이용권 30~50% 할인
- 뷰티, 스포츠 관련 이용권 할인

※ 전월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을 변동 적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http://www.shinhancard.com))를 참조하세요.

※ 할인가맹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업종, 상호, 할인제공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각 군·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운행정보 기능
- 나의 운행습관 자동진단
- 고장, 진단정보 기능
- 정비, 주유관리 기능

```

graph LR
    01[01 태그신청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02[02 부처장소  
협의  
태그장착예]
    02 --> 03[03 부처장소 방문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03 --> 04[04 태그장착  
태그장착예]
    04 --> 05[05 장착 및  
정보등록]
  
```



# 평생공부에 도전하세요

제물포와 강화에 있는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012년도 2학기 강좌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한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개발하는 데 평생을 공부하는 것 만큼 좋은 것이 없다. 평생학습이 부각되는 이유다.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2학기 강좌는 시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 체육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과정을 비롯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통역도우미, 건강관리, 창업, 아동전문 과정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강좌들로 구성됐다. 평생교육과정의 경우 개강 후 1주간은 무료 오픈강좌로 진행한다.

수강료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도화동 주민 30%, 남구 거주자를 비롯해 인천대학교 동문, 단체수강 등은 10%, 사회적배려 대상자 30% 등 학습비 감면이 있다. 강화캠퍼스의 경우 강화군민은 50%를 할인해 준다.

지원자격은 평생교육과정의 경우 성인,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대상이며 전 과정(90시간)의 3분의 2이상 출석한 경우 '인천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관련자격 증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수강신청은 8월 27일까지고, 학점제, 평생교육과정은 15주, 자격 증 취득과정은 주5시간씩 18주 수업이 이뤄진다.

문의 제물포캠퍼스\_835-9562~6, 강화캠퍼스\_932-1391~2

## ■ 제물포 캠퍼스

구 분	과 정 명	모집 인원	학습비 (학기당/원)	강의 요일	강의시간
2014 아시아경기대회 통역도우미과정 (4개과정)	영어회화(신규과정)	30	150,000	월/수	13:30~15:00
	영어회화(보수과정)	25	180,000	월/수	10:30~12:00
	스페인어(초급A과정)	30	150,000	토	10:00~12:50
	스페인어(중급B1과정)	25	180,000	토	14:00~16:50
	명리학(초급)	30	150,000	수	14:00~16:50
교양 및 문화과정 (9개과정)	명리학(초급)	30	150,000	수	19:00~21:50
	문화재답사	30	150,000	수	10:00~12:50
	부동산관리와 투자전략	30	150,000	금	18:30~21:20
	공동주택관리	30	250,000	화	19:00~21:20
	생활풍수지리	30	150,000	화	13:00~15:50
	세금절세방법	30	150,000	수	19:00~21:50
	4대보험과 인생설계	30	150,000	화	19:00~21:50
	주부들을 위한 현명한 재테크	30	150,000	목	13:30~16:20
	골프 A반	20	400,000	월/수	18:30~20:00
	골프 B반	20	400,000	월/수	20:00~21:30
건강관리과정 (11개과정)	골프 C반	20	400,000	화/목	18:30~20:00
	골프 D반	20	400,000	화/목	20:00~21:30
	골프 주간A반	20	400,000	월/수	10:00~11:30
	골프 주간B반	20	400,000	월/수	13:00~14:30
	골프 새벽반	20	400,000	화/목	06:30~08:00
※ 주2회 레슨 +금요일 자유연습 (12:00~21:00)	100세 건강을 위한 몸살림운동	30	150,000	목	18:00~20:50
	귀를통한 건강요법(아예테라피)	30	150,000	월	18:30~21:20
	유아아동성징운동및성장관리지도자과정	30	150,000	월	10:00~12:50
	효소만들기	30	150,000	월	10:00~12:50
	난 타	20	190,000	화	10:00~12:50
취미 및 여가선용과정 (9개과정)	문 인 화	20	190,000	금	10:00~12:50
	사 진 촬 작	20	190,000	월	19:00~21:50
	사 진 연 구	20	190,000	수	19:00~21:50
	산 수 화	20	190,000	수	10:00~12:50
	산수화 (A)	20	190,000	월	10:00~12:50
	산수화 (B)	20	190,000	화	10:00~12:50
	서 예	20	190,000	목	10:00~12:50
	서 각	20	190,000	수	13:00~15:50
	비즈니스플라워전문가	30	150,000	화	13:00~17:50
	성전 및 전례꽃꽂이	30	150,000	금	14:00~16:50
창업교육 전문과정 (8개과정)	이벤트와 화예상품연출	30	150,000	화	18:30~21:20
	※ 실용공예지도사	30	390,000	월	11:00~15:50
	※ 슈가크래프트(1급)	25	440,000	월	10:00~14:50
	※ 슈가크래프트(2급)	30	390,000	화	10:00~14:50
	※ 슈가크래프트(2급)	30	390,000	화	18:00~22:50
	우드 및 한지바닝	30	150,000	수	18:30~21:20
	※ 통합아동미술실무지도사	30	390,000	토	10:00~14:50
	※ 영유아미술지도사	30	390,000	월	18:00~22:50
아동교육 전문과정 (7개과정)	※ 아동미술심리상담사(2급)	30	390,000	화	09:30~14:20
	※ 아동미술심리상담사(1급)	25	440,000	목	18:00~22:50
	※ 특수아동지도사(2급)	30	390,000	금	10:00~14:50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30	390,000	화/목	10:00~12:50
	마주이아기로 일기쓰기 지도사	30	150,000	월	10:00~12:50
	※ 논술지도사(2급)	30	390,000	월	18:00~22:50
	※ 가족상담지도사	30	390,000	목	18:00~22:50
	전문교육과정 (9개과정)				

구 분	과 정 명	모집 인원	학습비 (학기당/원)	강의 요일	강의시간
전문교육과정 (9개 과정)	※ 미술심리상담사(2급)	30	390,000	목	18:00~22:50
	서예지도사	20	190,000	화	18:30~21:20
	※ 심리상담사(2급)	30	390,000	화	18:00~22:50
	※ 심리상담사(1급)	25	440,000	목	18:00~22:50
	※ 심리상담사(1급)	25	440,000	토	13:00~17:50
	※ 심리상담사(전문가)	20	520,000	금	18:00~22:50
	※ 초등수학지도사(2급)	30	390,000	목	18:00~22:50

## ■ 강화캠퍼스

구 분	과 정 명	모집 인원	학습비 (학기당/원)	강의 요일	강의시간
아동교육 전문과정 (6개과정)	※ 아동미술지도사	20	180,000	수	10:00~12:50
	※ 아동미술심리상담사(2급)	16	240,000	목	18:30~21:20
	※ 아동미술심리상담사(1급)	16	240,000	화	18:30~21:20
	※ 방과후아동지도사	20	180,000	수	10:00~12:50
	※ 특수아동지도사(2급)	20	180,000	수	10:00~12:50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20	180,000	금	10:00~12:50
	※ 가족상담지도사	16	240,000	목	13:00~15:50
	다문화상담사(2급)	16	240,000	수	13:00~15:50
전문교육과정 (11개과정)	※ 심리상담사(2급)	16	240,000	월	18:30~21:20
	※ 심리상담사(1급)	16	240,000	화	18:30~21:20
	※ 심리상담사(전문가)	16	240,000	화	13:00~15:50
	※ 미술심리상담사(1급)	16	240,000	목	18:30~21:20
	※ 미술심리상담사(2급)	16	240,000	목	15:00~17:50
	※ 초등수학지도사(2급)	20	180,000	목	10:00~12:50
	※ 한문지도사(2급)	20	180,000	금	10:00~12:50
	※ 한문지도사(1급)	20	180,000	목	14:00~16:50
	※ 한자지도사	20	180,000	목	18:30~21:20
	사 진 촬 작	16	240,000	수	13:30~16:20
	산 수 화	16	240,000	금	10:00~12:50
	서 각	16	240,000	화	13:20~16:10
취미 및 여가선용과정 (9개과정)	서 양 화	16	240,000	화	10:00~12:50
	서 예 (A)	16	240,000	목	14:30~17:20
	서 예 (B)	16	240,000	목	18:30~21:20
	칠 보 공 예	16	240,000	목	10:00~12:50
	수 채 화	16	240,000	월	13:00~15:50
	자 연 염 색	16	240,000	월	14:00~16:50
	※ 성전 및 전례꽃꽂이	16	240,000	금	09:40~12:30
	우드 및 한지바닝	20	240,000	목	10:00~12:50
창업교육과정 (3개과정)	※ 천연화장품만들기	20	240,000	월	10:00~12:50
어학교육과정 (5개과정)	영 어(초급)	20	180,000	화	10:30~13:20
	영 어(중급)	20	180,000	화	14:00~16:50
	영어회화(초급)	20	180,000	화	18:30~21:20
	중국어기초	20	180,000	수	18:30~21:20
	중국어(중급)	20	180,000	월	18:30~21:20
교양 및 문화교육과정 (3개과정)	생활풍수지리	20	180,000	목	13:00~15:50
	명리학(초급)	20	180,000	월	14:00~16:50
	명리학(중급)	20	180,000	월	18:30~21:20

## ■ 제물포캠퍼스 학점은행제

과목단위 모집 : 사회복지학, 아동학, 체육학, 교양

전공명	구 분	과 목 명	모집 인원	학습비 (학기당/원)	강의 요일	강의시간	
사회 복지학 (19)	전공필수 (9)	사회복지개론	40	180,000	화	18:00~20:30	
		사회복지법제	40	180,000	화	18:00~20:3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40	180,000	목	18:00~20:30	
		사회복지실천론	40	180,000	화	20:35~23:05	
		사회복지정책론	40	180,000	목	20:35~23:05	
		사회복지조사론	40	180,000	수	20:35~23:05	
		사회복지행정론	40	180,000	수	18:00~20:3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40	180,000	목	18:00~20:30	
		지역사회복지론	40	180,000	월	20:30~23:05	
	자격증 전공선택 (7)	노인복지론	40	180,000	월	18:00~20:30	
		아동복지론	40	180,000	수	20:35~23:05	
		여성복지론	40	180,000	화	20:35~23:05	
		사회문제론	40	180,000	화	20:35~23:05	
		사회복지윤리와철학	40	180,000	토	11:40~14:10	
		장애인복지론	40	180,000	목	18:00~20:30	
		정신건강론	40	180,000	목	20:35~23:05	
	사회 복지학 (19)	일반 전공선택 (3)	건강가정론	30	180,000	수	18:00~20:30
			가족상담 및 치료	30	180,000	목	18:00~20:30
			가족생활교육	30	180,000	목	20:35~23:05
아동학 (10)	전공필수 (2)	보육학개론	40	180,000	수	20:35~23:05	
		아동복지론	40	180,000	수	20:35~23:05	
	자격증 전공선택 (5)	부모교육	30	180,000	수	18:00~20:3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40	180,000	목	18:00~20:30	
		지역사회복지론	40	180,000	월	20:30~23:05	
		정신건강론	40	180,000	수	20:30~23:05	
		놀이지도	40	180,000	토	13:30~16:00	
	일반 전공선택 (4)	가족생활교육	30	180,000	목	20:35~23:05	
		가족상담및치료	30	180,000	목	18:00~20:30	
		결혼과 가족	30	180,000	월	18:00~20:30	
		아동가족의 이해	30	180,000	토	14:20~16:50	
		교양 (12)	재테크론	40	180,000	월	20:35~23:05
결혼과 가족	40		180,000	월	18:00~20:30		
사회복지개론	40		180,000	화	18:00~20:30		
부모교육	30		180,000	수	18:00~20:30		
아동가족의 이해	40		180,000	토	14:20~16:50		
현대인과 성인병	40		180,000	토	11:40~14:10		
사이버심리학	30		180,000	화	20:35~23:05		
행동치료방법론	30		180,000	화	18:00~20:30		
인간관계론	40		180,000	월	18:00~20:30		
체력관리와 건강	40		180,000	월	18:00~20:30		
세계신화의 이해	40		180,000	목	20:35~23:05		
가족상담 및 치료	30		180,000	목	18:00~20:30		





## 이달의 서평



### 울고 싶어도 내 인생이니까

백정미 | 함께북스 | 2011

울고 싶어도 슬퍼도 힘겨워도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 비법들을 소개한다. 저자는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늘 꿈을 간직하고 살고, 시간의 소중함과 사랑의 소중함을 알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지혜를 깨닫고 인생의 주인공인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인생에 책임감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죽음 앞에 이르러서도 후회라는 그들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 너의 꿈에는 한계가 없다

이영남 | 민음인 | 2011

오직 희망만을 말하며 도전하라! 이 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직업 종사자 가운데 큰 성취를 이룬 유명 인사들의 삶을 통해 각 직업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한다. 현업에서 활동 중인 인물들을 통해 직업의 장단점과 필요한 자질 및 그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들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듣는다. 연봉 정보, 10년 후 직업 전망까지 상세하게 밝혀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고, 올바른 직업관을 갖게 함으로서 직업 세계에 대해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 태어난 인생

은희경 | 창비 | 2012

인생과 사랑에 대한 사색이 담긴 소설로 저마다의 외로움과 오해 속에서 흘러가고 얽히는 관계들, 그 속에서 우리 내면의 나약함과 비루함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바라본다. 냉소적이고 위악적인 소설가 요셉과 신비로운 여인 류, 그들을 둘러싼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한때 요셉을 열렬히 사랑했지만, 마지막 한 걸음 앞에서 그를 떠났었던 류,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있는 퇴락한 작가인 요셉에게 예술가들을 다루는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과거의 제자 이안이 찾아온다. 이안은 영화를 통해 과거 요셉의 추문을 폭로하는 복수를 계획하는 데...

### 독도를 부탁해

전국사회과교과연구회 | 서해문집 | 2011

청소년을 위한 우리 땅 독도 이야기로 사연 많고 굴곡 많은 외로운 섬 독도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만 치우쳐 기술하던 단순한 학술적 연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독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자원·경제·사회·법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그 특징을 알아본다. 독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기술을 다양한 사진 및 그래프 등의 이미지 자료를 활용하였고, 역사적 접근이나 국제법상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쉽게 설명해 청소년과 일반 독자들이 흥미를 갖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 주제별 추천도서

자료제공 미추홀도서관 440-6655

서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우리는 왜 실수를 하는가	조지프 헐리언	문학동네	실수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다음에는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책
울고 싶어도 내 인생이니까	백정미	함께북스	울고 싶어도 힘겨워도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법소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꽃기듯 사는 삶에 자천이들에게 혜민 스님이 전하는 지혜로운 이야기
사당동 더하기 25	조은	또하나의문화	가난한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언어에 귀 기울이자!
말이 세상을 아프게 한다	오승현	살림friends	차별과 편견을 허무는 평등한 언어 사용설명서
너의 꿈에는 한계가 없다	이영남	민음인	오직 희망만을 말하며 도전하라! 최고의 멘토들이 전하는 직업이야기
세상을 바꾼 과학이야기	권기균	에르디아	위대한 발견과 발명, 그리고 그것을 이뤄낸 사람들의 열정과 실을 만나다
이게 다 야구 때문이다	서효인	다산책방	우리는 야구처럼 커왔고, 야구 때문에 즐거웠다. 매일 치고 달리며, 먹고 던지며, 야구처럼 지난한 동세대의 감수성을 풀어내고 있다
태어난 인생	은희경	창비	저마다의 외로움과 오해 속에서 흘러가고 얽히는 관계들, 그 속에서 우리 내면의 나약함과 비루함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바라본다
지하세계 아이들	프랑수아즈 제	자음과모음	가상 미래의 어느 공간을 배경으로 고아 소녀가 빈곤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과 싸워나가는 이야기
생전	류파이푸	글항아리	삼국지와 수호전은 어떻게 동양을 지배했는가
독도를 부탁해	전국사회과교과연구회	서해문집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독도의 비밀과 우리 국토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즐거움을 전해준다

####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 아동문학가 장태범

1941년 인천 출생

서라벌예대 문창과(1961)

방통대 초등교육과(1987)졸업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화부문 당선(1979)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 뽀빠나무 숲의 꾀다리'(1980), '현동이와 검둥이'(1995), '미시비시의 비밀'(2002) 등 11권의 동화집을 발간한 바 있다.



## 소중한 일자리, 행복한 일자리

본 정보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의 구인자료로, 초기에 채용이 완료 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자는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032) 458-7488,74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모집직종	인원	경력조건	학력	업무능력	근무지(주소)	임금액
세화공업	자동차부품 조립원	4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자동차 부품을 이용한 본네트 단순공정 및 조립작업 (신입가능, 상여금 4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18-6 4B-7L	시급 4,580원
대협정기	엘리베이터 부품 단순기계조립원	1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엘리베이터 부품(도르레) 원형사상 및 기계부품조립업무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97번길 68	시급 5500원
(주)우진플라임	일반기계조립원	4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사출성형기계 조립 및 용접 (신입가능, 상여금 6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73-3	시급 5,000원
(주)원태다이캐스팅	자동차부품 조립원	10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자동차 부품 주조,가공,사상, 금형 부분 (각 파트 모집) (통근버스, 기숙사운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0-10 71B-11L	시급 4,750원
(주)대화연료펌프	자동차부품 생산직	5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자동차연료부품 생산,조립,포장 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2	시급 4,580원
영원산업	도장(페인팅) 단순생산 및 가공원	3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도장(페인팅) 단순 생산 및 가공 포장업무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2,3동683번지	시급 5,500원
피자코리아	식품 가공 및 생산직	5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식품생산 및 포장라인 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1-18 101B-14L	시급 5,000원
(주)중산로지스틱스	지게차운전원	2명	경력 3년 이상	고졸이상	бат레리 지게차 입출고 업무 (전동차운전 가능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6-6 25B-6L	월급 160만원
킹카무역	중고차 무역사무원	3명	관계없음	관계없음	중고차수출 및 선적관련사무 중고차 매입및바이어관련업무(운전면허 필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49 카텍몰류단지	연 1,800만원
(주)인합상사	경리사무원(운수업)	2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주류도매 경리사무업무(주류 주문접수 및 내역 사무) (상여금 150%, 주 5일근무)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3,5동 59-34	월급 110만원
영풍문고 인천점	도서 판매원	2명	관계없음	고졸이상	서점 내 매장관리 도서 입출고 검수업무	인천광역시 남구 연남로 35 인천터미널지하1층	월급 130만원
애드민	편의점 식품분류원	3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편의점 식품분류(피킹업무) 박스 위에 적힌 수량만큼분류(업무강도 매우 쉬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09-5	월급 124만원
24시푸른계명사우나	사우나카운터 및 관리직	4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1.사우나 및 매장관리 2.주차관리 업무 (건강진단서첨부 필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78-2	월급 130만원
씨제이엠디원	상품 진열 및 홍보판촉원	5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인천관내 대형마트 매장내 C,제일제당 제품판매 및 판촉 (검단,블로,계양,효성,송도동)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121 (인천관내파견)	일급 50,000원
에스알에스코리아 주식회사	음식서비스종사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내 푸드코트 홀 청소업무(관내 셔틀버스운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월급 142만원
인천체육고등학교	학교급식조리원 모집	3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학교급식조리업무 (2조근무) (06:40~15:40/11:00~22: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42-3	연 1,660만원
상지F&I	체인점 주방업무 및 매장관리업무	4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떡볶이체인(남천할매떡볶이)매장관리 및 주방업무(오전,오후파트가능)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41,677-1	월급 130만원
(주)호텔카리스	호텔및숙박시설 청소원 (하우스키퍼원)	2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호텔 룸메이드업무(객실정리)	인천광역시계양구 작전동 428-2 카리스호텔	월급 115만원
제일환경산업	아파트청소원	6명	경력 1년 이상	학력무관	아파트시설 내 환경 청소업무 (시설 미화청소)	인천광역시 부평구부개동 부개LH2단지APT	월급 75만원
르호봇활윤세차	대형차 세차원	1명	관계없음	학력무관	대형차세차 및 오일교환 보조업무 (초보가능)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1동 587-72	월급 150만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정보에서 연령이 삭제되었습니다.

- ☞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구인·구직을 돕기 위해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458-7470 ~ 7479, 7488, 7494(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5번출구 50m 전방)
- ☞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는 (8월 29일/수) 오후2~5시) 5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취업특강을 실시합니다. 인천시 관내 적극적인 취업 의사가 있는 제대군인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궁금 사항은(☎ 032-458-7485)로 문의 바랍니다.





글. 이재창 내은병원 유방갑상선센터  
외과 전문의 과장

## 아름다운 가슴, 건강한 여성

2003년이후 국립암센터의 암발생률 통계를 보면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이 단연 최고 수치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40~50대의 여성의 빈도수가 가장 높다. 또 여성 15명 중 한 명은 평생에 한 번은 유방암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만큼 현대 여성들의 고민 중 하나가 유방암 발생이며, 그에 대한 자가진단 및 대처방안도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유방암의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와 만삭분만 경험이 없는 경우 1.6배, 첫 만삭 분만이 35세 이후인 경우 2배 위험도가 증가하며 수유하지 않은 여성은 수유여성에 비해 1.8배의 위험도가 증가한다. 또 비만과 음주, 흡연 및 가족력이 있는 사람도 유방암 발생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인자를 가진 여성의 경우 특히 면밀한 자가진단 및 검진을 통해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멍울과 피부함몰, 혈성분비, 유두미란, 유두함몰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유방암은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기적인 병원 검진만이 가장 이상적인 예방법이다.

따라서 유방암은 자가진단과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유방암은 0~4기로 분류되며 1기 이하의 경우 5년 생존률이 90% 이상이지만 4기가 되면 생존율도 2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체크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상적인 유방검진방법으로 30세 이후는 매월 생리 후 유방

을 자가진단하고, 35세 이후는 2년 간격으로 의사의 임상 진찰을 받는 것이 좋으며 40세 이후가 되면 1~2년 간격으로 의사의 임상 진찰 및 유방 촬영을 통해 검진하는 것이 좋다. 유방촬영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유방암 선별검사로 3~50대 우리나라 여성의 80%에서 치밀유방의 소견을 보여 초음파를 통한 재검 필요성이 생기게 되고 또한 검사시 유방의 압박으로 생기는 통증으로 검사를 기피하는 여성들도 많다. 하지만 유방촬영은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는 초기 유방암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므로 유방암 검진에서 유방촬영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다.

유방암을 진단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유방초음파 검사와 조직검사가 있다. 유방촬영이나 초음파에서 종양이 발견된 경우 최근 들어 많이 시행되는 검사는 mamotome를 통한 조직검사이며, 이는 유방종양의 발견 시 가장 확실한 제거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일반적인 유방 수술에 비해 흉터가 거의 없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mamotome는 통증이 거의 없고 100% 정확한 진단과 동시에 완전한 종양의 제거가 가능하다. 또 시술시간이 10분 내외로 짧고, 입원 필요없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

건강한 유방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이상증상 발견 시 조기진단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쁜 정원, 숨은 손길에 감사

어릴 적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했던 사냇물이 눈앞에 보여요. 물 속에서 나뭇잎 사귀가 살랑거리네요. 숨은 손길에 감사합니다. 서구 드림파크에서.

오종란\_서구 신현동



올여름 휴가는 무의도에서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무의도에 갔습니다. 하 나개해수욕장에는 갯벌이 넓게 깔려 있습니다. 바지락, 소라 등을 잡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박경환\_서구 당하동



백야도 공룡

백야도 남봉에는 성채만한 몸집을 가진 거대한 공룡이 살고 있습니다. 그 등을 탈 수도 있지요. 그 위에서 덕적군도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김찬현\_계양구 계산동



동북아트레이드타워는 어디에

며칠 전 송도센트럴파크를 산책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동북아트레이드타워는 어디로 갔을까요. 구름이 짙은 장난을 쳤네요~

김명수\_연수구 송도동



제주도 가는 길, 인천에서

제주도로 여행가는 길 인천여객터미널에서 담은 풍어제 풍경입니다. 차차 잊혀져가는 전통문화가 눈앞에 펼쳐져 흐뭇했습니다.

최희경\_강서구 방화동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원고지 1매 분량)을 보내 주세요.
- 칭찬하거나 알리고 싶은 주변의 이웃을 사진과 함께 소개(원고지 1매)해 주세요

※ 채택된 분께는 문화상품권(1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보내실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독자마당 담당자 앞

문의 : 440-8305







## 동북아 평화 경제교류부터 하자

글. 김중현\_인천국제교류센터 국제협력팀 팀장

6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동안 중국 요녕성 단둥시에서 개최된 ‘2012 인천~단둥~한겨레 서해협력 포럼’에 참가했다. 본 포럼은 6·15 및 10·4 남북공동선언 12주년 그리고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만큼 남북관계, 서해평화협력, 한국과 중국간 수교 20주년 의미 등을 주요내용으로 다뤘다.

첫째 내용은 ‘서해에서 인천의 역할과 구동존이(求同存異)자세의 필요성’, 둘째, 동북아 시대와 서해에서의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 셋째, 남·북·중 3자 경제협력의 윈 윈 윈 모델의 가능성과 과제, 넷째, 남·북·중 경제협력 실태와 전망’ 순의 내용으로 다뤄졌다. 동북아 주요 국가는 정권교체가 났음에도 대 동북아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는 반면에 한국정부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대북정책이 큰 폭으로 바뀌었다는 한 토론자의 지적이 흥미로웠다. 이 주장은 한국에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지역 전체가 긴장관계로 바뀌기에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동북아 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다.

포럼에 참여한 후 단둥 현지에서 느낀 소회는 이렇다. 첫째, 단둥에는 약 2만 5천명의 화교(華僑)가 거주하고 있다. 여기서 화교는 중국 남성이 북한에 건너가 북측 여성과 결혼해 낳은 자녀들을 말한다. 차량에 ‘통행증’만 부착하면 압록강 철교를 맘대로 건너 신의주를 통과해 북한 출입이 자유롭다. 우리 대표단 현지 가이드 부모 역시 북측에 거주하고 있고 본인은 여름휴가때만 평양에서 부모님과 휴가를 즐긴다고 한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었다. 둘째, 현지 여행사 대표와 식사하면서 느낀 점이다. 그에 따르면, 일제시대때 항일 독립운동의 전진기지였던 ‘신홍무관학교’ 터가 현재 불품없는 평범한 옥수수 밭으로 바뀌어 그 흔적조차도 찾기가 힘들다면서, 중국정부의 동북 3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역사

왜곡을 강화하는 시점에 우리 선조들의 유적지를 방치한 것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천안함, 연평도, 박양자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시행된 현 정부의 5·24조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중국의 경제의존도는 날로 높아간다. 압록강 하구에 한창 건설되고 있는 압록강 신교(新橋)가 건설되면 지금보다 그 물동량이 몇 배나 더 늘어날 것이다. 또한 압록강 신교 부근에 한창 조성중인 북·중 합작의 황금평 특구단지 역시 북측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다. 북·중의 경제교류 확대로 손해를 보는 쪽은 남·북측이라는 사실은 당연하다. 화교를 통한 남북교류의 새로운 모색, 만주별관 순국선열들의 역사훈적에 대한 재조명, 5·24 조치의 재검토는 당면현안 과제라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은 행복과 평화를 갈망한다. 행복과 평화의 반대는 불행과 불안정이다. 동북아권 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안정, 번영을 위해서 정치이념과 체제보다는 경제협력과 교류를 먼저 시작하는 선경후정(先經後政)의 접근방식이 다시 한 번 시급히 요구된다.

###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인간 행복의 원천은 감동이고, 불행의 근원은 고독이다”

전 세계를 통틀어 빌게이츠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혹은 넘어선 사람은 제일교포 3세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의 일 것이다. 위 문장은 그의 경영이념과 핵심가치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며 모든 경영활동은 인간의 ‘행복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너희가 물을 아느냐

‘물 쓰듯 한다’는 말, 이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요즘 물, 예전의 몸값이 아닙니다.

빗물 받아놓은 이 큰 물통을 보는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공동수돗가에서 물지게로 길어 먹었던 게 엇그제인데

우리는 요즘 물을 너무 허투로 씹니다.

구태의연한 표어이지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지키면 맑은 물, 가꾸면 푸른 숲!’

(남구 용현동에서)

글·사진 유동현\_본지편집장